

일제강점기 해외 한인의 연극 활동 연구

- 공연 보도 자료를 중심으로 -

윤금선*

<차례>

- I. 머리말
- II. 공연 주체와 그 활동 양상
 - 1. 재미 한인의 연극 활동
 - 2. 동북아시아 이주민의 연극 활동
- III. 극의 내용적 고찰
 - 1. 재미 한인의 공연 내용
 - 2. 동북아시아 이주민의 공연 내용
- IV. 민족운동 사회교육으로서의 연극
- V. 맺음말

I. 머리말

이 연구는 일제강점기 재미 한인과 동북아시아 이주민¹⁾의 연극 활동

* 동덕여대 전임강사

1) 이홍우는 외국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한인들에 대한 다양각색의 지칭어, 즉 ‘이민’, ‘해외망명자’, 또는 ‘해외동포’, ‘재외동포’, ‘교포’, ‘유민’, ‘유이민’, ‘한인’ 등으로 다양한데,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칭어들이 그들을 소외시킬 수 있다고 보면서 모두 ‘한인’으로 통일하여 지칭하였다. 본고에서도 이에 공감하는 바지만 만주나 연해주의 경우는 민족의 불행한 역사로 말미암아 재미 한인과는 달리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여겨 나누었다(이홍우, 『1910년대 재

을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1905년 즈음부터 이루어진 해외 이주는 1910년 국권 상실 이후 더욱 증가되었는데, 자의건 타의건 미국·만주·상해·소련 등지로 이주해 갔다. 조국을 떠나 해외에 거주하게 된 이주민들은 국권 박탈의 상실감에다 낮은 타국에서 경제·정치·사회 등 여러 방면에서 소외와 고통을 겪는 이중의 질곡에 처해 있었다.

먼저 미주 지역을 보면 초창기 한인 이민자들은 다수의 노동자들과 소수의 지식인들로 나뉜다. 1896~1905년 사이에 하와이로 건너간 7,000여명의 한인들은 대부분 상인이나 노동자들이었고, 1921~1940년 사이에 도미한 250여명의 한인들은 대부분 유학생들로서 지식인 계층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지식층 이민자들 가운데는 학생들 외에 정치적 도피자들도 더러 있었고, 이들이 상당 기간 한인 이민 사회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²⁾

재미한인들에게 있어서 미국은 본질적으로 이민자들의 나라이고 한인들도 그들 가운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초창기 이주민들의 경우 대부분 불가피한 상황에 의한 타율의 소산이었다는 점에서 다른 소수 민족들과 구별된다. 일제강점기에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기본적인 삶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택할 수밖에 없었던 길이 이민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1세대 이주민들의 경우는 자신들을 ‘이민 移民’이 아닌 ‘유민(流民)’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³⁾

동북 아시아 이주민의 경우, 이주와 정착 과정에서 겪은 고통은 더욱 현연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다. 특히 만주로 이주한 교포들 가운데는 일본에 의한 강제 개항 이후 3·1 운동 무렵까지는 조국의 광복을 위

미 ‘신한민보’ 소재 희곡 연구, 『한민족어문학』 제45집, 한민족어문학회 2004, 2면 참조.

2) 조규익, 「‘移民문학’은 ‘우리 문학’이다 : 재미한인 이민문학의 현황과 의미」, 『OK times』 제107호, 해외교포문제연구소, 2002, 15~21면.

3) 위의 글, 15~21면 참조.

해 싸우려는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었으나, 산민증식계획(産米增殖計劃)의 실시 이후부터는 뿌리뽑힌 농민들이 만주에서나마 삶을 도모하려 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만주로 가는 이주민 수의 증가는 우리나라 안에서 일제침략이 그만큼 가혹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⁴⁾ 그러나 이주 후에도 중국인들의 조선인에 대한 착취, 소련의 강제 이주 등의 체험으로 그 고통이 더했다.⁵⁾

당시에 그들이 조국의 생활 현장에서 익힌대로 이민지에서 새로이 창작한 각종 노래들과 지식인들이 창작한 산문(특히 소설·희곡 등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들 작품에는 작자 자신들 혹은 이들이 대표하던 한인 이주민들의 자아가 반영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바로 그 자아가 그 작품의 내용이나 주제의 방향 또한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주민 1세대에

4) 蔡薰, 『在滿韓國文學研究』, 깊은샘, 1990, 19면

5) 특히 이주하여 소비에트 건설에 참여한 소위 '고려인'이라고 불리우는 이들은 구한말의 혼란과 기근을 피해 연해주 지역에 정착한 사람들과 일제 강점기 사할린의 탄광으로 징발되었다가 본토로 이주한 이들, 그리고 독립운동을 위해 러시아로 이주한 독립운동가 등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고려인의 대다수는 경작할 땅을 찾아 국경을 넘는 이들과 독립운동을 위해 러시아 땅으로 들어온 독립운동가들이었다. 이들은 1917년 러시아 혁명과 내전에서 볼셰비키 파에 적극 가담하여 원동 소비에트 정권 창출에 공헌하였다. 원동 소비에트 정권이 수립된 후 대부분 고려인들은 일제강점 하에 있는 조선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자신들이 개척한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즉 그들은 원동을 봉건 압제와 일제 강점으로부터 탈출의 땅이자 "조국해방의 열쇠"로 인식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보낸다. 그러나 이러한 고려인들의 꿈은 스탈린의 '강제이주(deportation)' 정책으로 인해 산산이 깨져 버렸다. 강제이주는 고려인들에게 '민족전멸'이라는 미증유의 공포를 불러 일으켰다. 피땀으로 일군 원동에서 추방되어 낯선 사막 한가운데 버려지듯 내던져졌다. 이 과정에서 고려인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시달렸다. 고려인들이 자신들의 모국어를 스스로 포기하면서까지 소비에트 공민되기에 매달렸던 것도 따지고 보면 그만큼 강제이주로 인한 공포가 컸다는 것을 반증한다 하겠다(강진구, 「제국을 향한 모델 마이너리티(model minority)의 자기 고백」, 『현대문학의 연구』 제29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06, 172면 참조.

속하는 이들의 문학은 주로 한국문학으로부터 강한 인력을 받음으로써⁶⁾ 주제나 형태의 면에서 당시 국내 성향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후대로 갈수록 그 강도가 약화됨을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재미 한인과 동북아시아 이주민의 현실적인 상황과 문학적인 경향들을 감안하면서 그들의 연극 활동을 살펴 볼 것이다. 먼저 연극 활동을 전개한 주최측이 누구이며, 공연 목적이 무엇이며 관객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를 주시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공연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서 그 성격이 어떠한지를 고찰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 공연물을 보면 극작가들에 의해 생산된 희곡 작품에서 무대에 실연된 연극 작품까지의 과정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연극 공연의 가변성 때문에, 동시대적으로는 관련 문헌과 연극학적 사실의 부재로 인하여 ‘극작가가 쓴 작품 → 연출가가 창조한 작품 → 배우가 공연한 작품 → 관객이 이해한 작품’⁷⁾이라는 텍스트의 전환 과정을 살펴 보기 힘들다는 한계를 지닌다.

본고는 희곡 분석이라기보다 기사에 게재된 동시대 공연 비평이나 내용 소개를 중심으로 한 연극학적 사실을 준거로 한 공연시학적 성격을 띠고 있다. 본고에서 텍스트로 삼은 것은 주로 당대 신문⁸⁾이다. 그야말로 제시된 기사문을 중심으로 살펴 본 것이기에 보도되지 않은 활동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간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해외 교포의 연극 활동에 대한 논의와 활동들을 단편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당시의 정황을 알 수 있는 유효한 지면으로, 당대 해외 교포의 연극 활동과 관객의 반응 등을 부분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6) 조규익, 앞의 책, 16~18면 참조

7) 민병욱, 『현대희곡론』, 삼영사, 1991, 5~6면

8) 본고에서 텍스트로 삼은 신문은 일제강점기 해외 신문 『國民報』, 『新韓民報』, 『태평양주보』, 『韓民』, 『先鋒』, 『獨立新聞』 등이다.

일제 강점기 국내나 일본에서 우리 민족들의 연극 활동은 이미 여러 각도로 연구된 바 있다. 하지만 해외 한인들의 연극 활동에 대한 연구는 최근 들어 주목받기 시작했다.⁹⁾ 이 연구는 동포들의 실제 연극 활동상을 조망하고 재구해내려는 시론으로서 기존 연구에 작은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II. 공연 주체와 그 활동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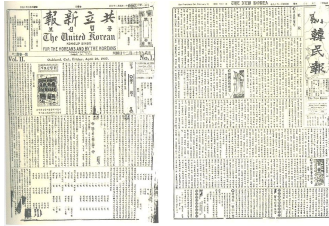
1. 재미 한인의 연극 활동

일제 강점기 재미 한인 사회에서는 대대적인 행사가 있을 때마다 연극 공연이 빠지지 않는 행사 중의 하나였다.

연극준비 이번 총회당 취임식에 여흥을 도읍기 위하야상항인 연극가들은 신무대에티극극(新舞臺太極旗)란 연극을시로편성 하얏다더라!¹⁰⁾

9) 특히 희곡에 있어서 동북아시아 이주민의 작품 발굴과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연구 논저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박명진 「고려인 희곡 문학의 정체성과 역사성 -연성용 희곡을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제9 집 2004; 박명진,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에 나타난 민족 정체성 -희곡텍스트를 중심으로」, 『인문연구』 제48집,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5; 강진구, 「제국을 향한 모델 마이너리티(model minority)의 자기 고백」, 『현대문학의 연구』 제29 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06; 이명재 외, 『억압과 망각 그리고 디아스포라』 한국문화사, 2004(이명재 · 오창은, 「구소련권 고려인 문학의 현황과 특수성」, 강진구,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에 나타난 기억의 양상 연구 -강제이주를 중심으로」, 박명진, 「고려인 문학에 나타난 민족서사의 특징 -극작가 한진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명재 외, 「좌담: 재소 고려인 문학의 특징과 발전 방향」 등.

10) 「연극준비」, 『新韓民報』(1914년 2월 26일).



<그림 1> 『공립신보』로 출발했던 『신한민보』

위 기사에서는 샌프란시스코 북미지 방총회 회장 취임식에서 여흥을 살리기 위하여 <티극기>라는 연극이 공연될 예정이라 밝히고 있다. 또 다른 기사 「3·1 절경축에 굉장한 연극」, (『신한민보(新韓民報)』,¹¹⁾ 1923년 2월 22일에서도 “샌 프란시스코지방회에서의 삼일절을 기념하여 공연”했다고 쓰여 있다. 당시 신

문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자주 보이는데, 특히 ‘대한민국민회’¹²⁾를 중심으로 연결된 각 지방회에서 한인들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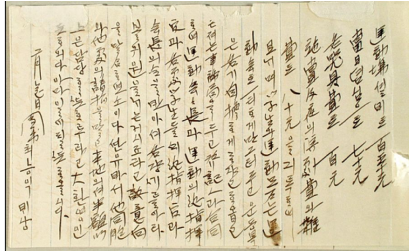
11) 재미교포단체인 ‘共立協會’가 그 기관지로서 1905년 2월 20일 창간한 신문 『共立新報』는 신민회의 기관지 역할을 하던 『대한미일신보』의 국외 자매지 같은 구실을 하였다. 이후 공립협회는 1909년 2월에 하와이에 교민단체인 ‘한인합성협회’와 캘리포니아의 다른 교민단체인 ‘대동보국회’를 통합하여 1909년 2월 1일에 ‘國民會(Korean National Association)’로 발전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공립협회의 기관지였던 『共立新報』도 국민회의 기관지로 개편되어 1909년 2월 1일부터 『新韓民報』(The New Korea)로 개제(改題)하게 되었다 『新韓民報』는 이후 국권회 복운동 관련 기사가 증가되고 국내소식도 더 많이 게재되었다. 뿐만 아니라 노령과 중국 등지에 있는 재외 동포들의 소식까지 광범위하게 망라하게 되었고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정책에 대한 비판도 더욱 날카로워졌다. 일제 당국의 감시와 간섭을 받지 않는 해외에서 발행되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입장에서 국권회 복운동을 보도하고 고취하였다. 이점은 국내 같은 시기의 『皇城新聞』이나 『대한미일신보』 등이 처해 있던 조건과는 판이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新韓民報』는 구한말에 연해주와 북간도의 교민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읽히고 영향력을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유입되어 애독되었다(한국학문헌연구소, 『公立新報·新韓民報』, 문예공론사, 1981, 1~4면 참조).

12) 1910년 5월 재미 한인의 통합교민단체로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가 만들어져 있었다. 이는 공립협회를 비롯한 미국 본토와 하와이의 각 한인단체가 합쳐진 조직이었다. 처음에는 북미 지방총회와 하와이 지방총회만이 있었으나, 계속하여 시베리아 지방총회와 만주 지방총회도 설립되었다. 그리하여 1912년 11월에는 도산의 주관으로 4개 지방총회 대표자가 모여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를 결성하고, 그를 중앙총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이로써 해외의 전교민이 그를

연극 공연도 매년 행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극 공연은 재정적인 지원도 받고 있었는데, 한 예로 문건류에 속하는 안창호 서신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日前 桑港(샌프란시스코)서
말씀드렸던 바, 판유바(다뉴바)
바에서 포도를 딸 시기에 大
運動會를 一次 하여보던가 하
는 일로 此處 幾人이 發記를
하여 판유바(다뉴바)로 보내며
(...) 施賞及 夜의 演劇費와 雜
費로 八十元을 기록하여 보내
며 學生의 運動모자는 運動會와
일치하게 만들어주고 운동복은 각기
自擔하게 하자고 하옵고 (...) 運動場
설비로 百五十元 當日 점심으로
七十元 各器具費로 百元¹³⁾



<그림 2> 최능익이 안창호에게 보낸 서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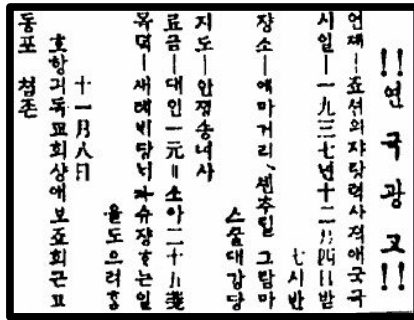
인용문을 보면 상항(샌프란시스코)의 판유바(다뉴바)에서 포도를 딸 시기에 대운동회가 있었는데 이 시기에도 연극을 공연하였고, 그 비용도 책정되어 있다. 이러한 기사는 「카우아이 소식」 『신한민보』 1938년 5월 11일)에서도 드러난다.

카우아이 공동회와 단합회는 4월에 또 정부로 370원을 상납하라 함을, 두 조목에 나누어 공동회 수금 170원 카우아이 부인합성회 연극모집금 105원 17전으로 정오¹⁴⁾

대표자로 하여 하나의 조직 속에 결집된 셈이었다.

- 13) 「崔能益이 安昌浩에게 보낸 서신」(다뉴바 ; 연도미상), 독립운동가자료, 발신자 최능익 수신자 安昌浩(서기력 二月 念日).
- 14) 「카우아이 소식」, 『新韓民報』(1938년 5월 11일).

위에서 보면 카우아이 공동회와 단합회에서는 연극 공연을 위하여 따로이 모금을 걷기도 하였다. 이렇듯 연극 공연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까지 하였다는 것은, 주지한 바와 같이 당시 한인 사회에서 연극 공연이 빠질 수 없는 주요 행사였음을 의미한다. 공연은 학교 강당이나, 교회 등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매번 신문에 광고되고 있다.



<그림 3> 연극광고(『국민보』, 1937년 11월 24일)

그런데 여기에서 공연 주체가 누구인가의 문제는 주시할 만하다. 연극 활동에 있어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는 부인회였다.

「와히아와부인회연극」(『신한민보』, 1938년 낱짜 미상)를 보면 부인회가 주최하는 연극 소식을 접할 수 있다.

본도 와히아와 대한인구제회에서 성대훈연극 활동을 준비한다 함은 본보에발서보도했거니와 금월十一하오七시반에 해디방정부학교에서 봄바람에 사람의 마음이라는 연데로 재미잇는연극을개홀터인데 부인 제씨는열심으로 월여간준비했스며 연극에 수입되는금액은 국어학교를증수홀계획이라한다¹⁵⁾

대한부인구제회(大韓婦人救濟會)는 부인들로 이루어진 단체로서 이들이 ‘국어학교’ 증축 기금을 마련키 위해 연극을 공연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국어학교는 재미 한인 사회에 설립된 국어보급을 위한 상설기관으로서 국어의 보존이 민족의 보존이라는 인식 하에 세워진 학교이다.¹⁶⁾ 일중

15) 「와히아와부인회연극」, 『新韓民報』(1938년 낱짜 미상).

16) 당시 국어교육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열었던 하기 강습소와 달리 상설 국어교육

의 민족애를 발휘하는 학교 증축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하여 연극 공연이 올려진 것이다.

부인회의 공연 소식은 자주 게재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연극의 교육적 효과와 더불어 입장권 판매로 기금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금년에 이연극은참으로 볼만한 연극이외다 (……) 연극은 우리의 유일한 교육기관인 기독교원들을위하여 우리기독교회에속한청년회원三十一명이 출연할터이오며 조흔 노래도 만히잇습니다. (……) 시일은三月五日 (반주일)저녁七시반이오 장소는 에마거리에잇는 샌츨렐학교이외다 입장권은 어른은七十五전이오 아희들은 二十五전¹⁷⁾

인용문에서 제시된 바 연극 공연은 사회 봉사와 연결되어 활발한 운동으로 전개되었는데, 특히 위 연극은 3·1절 기념극이면서 총회 건립 기금 마련이라는 목적을 위해 공연되었다. ‘애국극’이라고 소개¹⁸⁾된 것을 보면 교민들의 민족의식을 고취하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극에서 부인들은 주최 뿐만 아니라 배우로 출연하기도 했다.¹⁹⁾

연극의 등장인물들은 박금우·박정금·김정환·김보배·정순덕·정덕순·양남수·박매리·김헬른·이정님·박정숙·이성학·곽명숙·이끝순·김복순·추복동·박덕실 겸 연극교사겸 설명사는 홍창기씨며 연극 시 원조위원은 양유찬(梁裕燦)·김원용·조금문 제씨며 연극표를 판

기관으로서 국어 보급을 확산시키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 기관이다(윤금선 『9세기 재미 한인의 국어교육』 『국어교육』 113호, 한국어교육학회 2004, 203면 참조)
17) 「三·一절연극」, 『태평양주보』(1938년 날짜 미상) 기사 내용을 보아 3월경으로 보임.

18) 「3·1절애국연극」, 『國民報』(1937년 1월 20일), 「대결작대연극」, 『國民報』(1937년 2월 17일), 「부인구제회 연극원」, 『國民報』(1937년 3월 3일)

19) 「대결작대연극」, 『國民報』(1937년 2월 17일), 「부인구제회 연극원」, 『國民報』(1937년 3월 3일).

위원은(...)20)

3·1절 기념 연극은 보다시피 배우는 물론 연극 지도, 매표 등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일반인들에게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 연극이 공연된 첫날 4·500명이 입장하였고, 연극 출연자들의 연기력도 불만했다고 보도되었다. 관객들은 시종 무대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고 한다.²¹⁾ 이 연극은 계속해서 관객을 끌었는데, 「3·1절 부인들의 연극을 보고 얻은 감상」(『국민보(國民報)』, 1937년 3월 10일)에서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재래에(이제까지) 부인들의 연극을 많이 보았지만 이번 부인들의 연극처럼 나에게 깊은 감상과 느낌을 준 연극은 없었다. 바쁘신 가정주부로서 사회를 도우려는 아름다운 주지 아래 바쁜 일에도 불구하고, 정성껏 준비하여 5·600명이나 되는 많은 청중에게 기쁨과 슬픔과 웃음으로 만족을 줌에 대하여, 이 글을 쓰는 나로서 감사의 치하를 아니할 수 없다.²²⁾

부인구제회에서는 이외에도 “혈성금(血誠金)을 모집하기 위하여”,²³⁾ “중국 난리에 고초를 당하는 우리 동포들의 구제를 위하여”,²⁴⁾ “적십자회에 기부할 터”²⁵⁾ “군인들을 재정적으로 돕기 위하여”²⁶⁾ 등 다양한 목적을

20) 「부인구제회 연극원」, 『國民報』(1937년 3월 3일).

21) “2월 26일 밤 7시 30분에 거행한 부인구제회 婦人救濟會 연극에 대하여 당일 4·500명이 입장하였고, 연극에 출연한 분들은 민첩하고 경력이 많아서 이에 활동함이 남들만 못하지 아니하였다. 일반 관광자(관객)로 하여금 취미의 깊은 뜻을 주었는데”(「부인구제회 연극후문」, 『國民報』, 1938년 3월 2일).

22) 「3·1절 부인들의 연극을 보고 얻은 감상」, 『國民報』(1937년 3월 10일).

23) 「부인구제회 연극」, 『國民報』(1938년 2월 9일).

24) 「부인구제회 연극준비」, 『國民報』(1938년 2월 9일).

25) 「적십자회연극」, 『國民報』(1942년 5월 20일).

26) 「군인위한 조선연극」, 『國民報』(1945년 1월 17일).

가지고 공연을 주최했는데, 주목할 것은 이 단체가 ‘대한인국민회’의 소속 기관이라는 점이다.

「부인구제회 통상회록」(『국민보』, 1943년 11월 24일)을 보면, 호놀룰루 지방 부인구제회(婦人救濟會)를 국민총회 國民總會에서 열고 「춘향전(春香傳)」을 공연할 것을 결의하였고 연극 진행 대표자로 김보배를 선출하였다.²⁷⁾ 국민총회에서 연극 공연에 관한 사항들을 결의할 정도로 당시 재미 한인 사회에서는 거국적인 관심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한인 연극 활동에 있어서 부인회의 역할을 가늠케 하는 예라 하겠다.

부인회의 연극 활동이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이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청년회 중심의 연극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기독교 먼리청년회주최로 기독교원을 위하여 금년三一절에 대연주회를 국어로진행홀티인데 애국정신을포함하고 한인청년에게 충기발달을보히기로(……)모든동포는 이기회를기다려서 한번조흔구경을홀수있슬티이라.²⁸⁾

호놀룰루부인기독교청년회(婦人基督青年會) 국제부 한인반에서는 대학에 재학중인 총명한 학생들로 도움을 요구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학비를 모집하려고, 한인여자형제회(韓人女子兄弟會)의 주최로 「한인의 연극 밤」이라는 순서를 차려 영어와 한국말로 세 가지 재미스러운 각본을 가지고 연극을 시험할 터인데 장소는 부인기독교청년회 내로, 일자는 5월 8일 「토요일」 하오 8시로 예정하였으니 목적도 좋거니와 연극 자체도 매우 예술적일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미국과 한국의 음악도 간간이 있으리라더라.²⁹⁾

청년회에서도 ‘기독교학원’ 의연금과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들의 학비

27) 「부인구제회 통상회록」, 『國民報』(1943년 11월 24일).

28) 「기독교학원티연극」, 『태평양주보』(1939년 2월 25일).

29) 「학비모집 연극회」, 『國民報』(1937년 4월 14일).

마련을 위해 공연을 주최하였다. 그런데 주시되는 점은 “국어로 진행”, “영어와 한국말로” 연극을 한다는 내용이다. 위 기사가 게재된 시기는 1930년대 말로서 초기와 다르게 국어보다 영어가 익숙한 신세대가 나타났다³⁰⁾ 해외에서 터전을 잡으면서 내외국인 모두를 겨냥한 연극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 외에도 당시 하와이의 유일한 교육기관인 대학교 한인학생부 ‘보성회’에서는 학교에서 수업할 한인 예비생들의 “예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³¹⁾ 혹은 “새 예배당 설립”³²⁾을 위하여 연극을 공연하기도 했다.

‘형제회(兄弟會)’라는 단체명도 자주 보인다 이 단체에서도 “한인 연극의 밤”을 열고 “단막연극세계”를 펼치기도 했고³³⁾ <봄놀이>라는 연극을 공연하여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주었으며³⁴⁾ “군인을 위한 조선연극”을 공연하기도 했다³⁵⁾ 호놀룰루 미술관에서 ‘심청전’을 영어로 공연하였는데 내외국인에게 인기를 모았고 관객이 넘칠 정도로 참관하였다. 특히 <심청전>은 관객들의 요청에 의하여 재공연된 인기작이었다.³⁶⁾ 호놀룰루의 ‘기독교여자청년회’ 내에 조직된 ‘한인여자형제구락부(韓人女子兄弟俱樂部)’에서도 육·해·공군에 복역하는 군인들을 초대하여 연극을 공연하였으며, 공연 중에 미술품이나 골동품, 복색 등을 전시하기도 했다.³⁷⁾

30) 1929년 4월 4일자 『新韓民報』 「가주에 와서 얻은 감상(1929년 4월 4일)에서는 해외 이주민의 국어와 국문 교육의 시급함이 잘 나타나 있다. 그 내용은 국문과 국어보다 영어에 능하고, 민족 정신도 없는 아이들을 염려하면서 국어교육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 세대를 향한 국어교육은 바로 민족 정신과 연결되기에 이의 중요성은 지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윤금선, 「일제강점기 신문에 나타난 국문론」, 『한국언어문화』 제24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3, 323면.

31) 「대학교 보성회 연극」, 『國民報』(1938년 1월 26일).

32) 「연극소식」, 『國民報』(1937년 11월 17일).

33) 「한인의 연극 밤 순서」, 『國民報』(1937년 5월 5일).

34) 「봄놀이의 좋은 성적」, 『國民報』(1938년 5월 11일).

35) 「군인 위한 조선연극」, 『國民報』(1945년 1월 24일).

36) 「심청전 연극을 재차 공연」, 『國民報』(1938년 6월 22일).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 본 바, 재미 한인의 연극 활동이 주로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³⁸⁾과 구체책이나 의연금 마련을 위한 것이라는 점은 주목할 사항이다. 먼저 기독교 중심의 활동에 대해서는 미국 사회가 기독교 중심이라는 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겠으나, 당대 조선의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인의 초기 이주지인 하와이로 이민을 주선한 사람은 당시 주한 미국공사로 있던 알렌(Horace N. Allen)이었다. 1901년 주한 미국공사로 승진된 그는, 그해 샌프란시스코에서 하와이 사탕수수경작자 협회(HSPA)의 이사 어윈(Wm G. Irwin)을 만나, 한국인 노동자를 필요로 한다는 계획을 듣고 한국 정부와의 중개에 나서게 되었다. 당시 한국은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알렌은 고종을 설득하여 백성들을 하와이로 보내어 척식사업(拓植事業)과 신문화를 도입하도록 건의하였다. 이를 계기로 하와이 이주가 추진되었는데, 하와이 이민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한국 기독교회였고 자연스럽게 이주 후에도 기독교의 역할이 컸다. 기독교의 영향력은 하와이 뿐만 아니라 재미 동포들의 지역적인 확산과 함께 자연스럽게 퍼져나갔고, 미주 교포들은 주로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한인 사회를 유지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다.³⁹⁾ 그러므로 교회를 중심으로 연극 활동이 이루어진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또한 재미 한인들은 정착 이후부터 국권회복을 위해 독립자금을 헌납하는 등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는데 원동력이 되었다. 한국 이민집단은 문맹율이 65%였지만 기독교로 개종하는 동시에 교육에 열의를 가져 재빨리 미국의 진보사상을 수용함으로써 하와이 생활에 적응했고, 그 결과

37) 「형제구락부 연극」, 『國民報』(1945년 1월 17일)

38) 이홍우(2004)에서는 재미 한인 사회에서의 연극을 크게 교회극과 사회극으로 나눈 바 있다.

39) 이만열, 「하와이 이민과 한국교회」,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16집,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2, 37~38면 참조

러일전쟁 이래 일본의 침략 위협에 직면하자, 항일 독립운동의 ‘기층 세력집단’으로 성장했다. 대한인국민회는 한인합성협회·공립협회·대동보국회 등 3개 정치단체가 하나로 결집되어 민족 운동의 총본산이 되었다. 또한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됨에 하와이 교민을 중심으로 ‘애국금’ 30만 달러를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1919~1945년까지 ‘혈성금’ ‘후원금’ 명목으로 독립 의연금 300만 달러를 별도로 모금하여 임정에 헌납함으로써 한국독립운동 전개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⁴⁰⁾ 이러한 맥락에서 연극 공연의 수익금은 하나의 민족 운동을 위한 자금 마련의 장이기도 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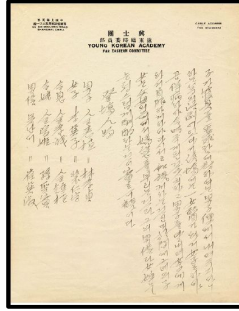
지금까지 살펴 본 바, 재미 한인 사회에서 연극의 공연은 크고 작은 행사에서 일반화되어 행해졌다. 대개 부인회와 청년회, 종교 단체 등에서 연극을 주최했는데, 구제를 위한 의연금 마련이라는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서도 연극을 자주 공연하였다. 이들 단체 중 부인회의 활동이 가장 두드러졌고, 청년회나 기독교 단체 등은 모두 이 부인구제회와 연결되어 있었다. 또한 이들 단체는 모두 ‘대한인국민회’의 소속 단체였으며 국민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 당시 한인들에게 국민회는 그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였다.⁴¹⁾ 망국이나 실항이라는 부정적인 현실에서 국민회 행사에서 펼쳐지는 공연의 장은 보통의 관극 체험 이상으로, 한인들의 단합과 정체성을 확인케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화(會)에서는 더더욱 연극 제반 활동에 지지를 보낸 것이라 여겨진다.

40) 김원모, 「하와이 한국 이민과 민족운동」, 『미국사연구』 제8집 한국미국사학회 1998, 208~219면 참조.

41) 조규익, 앞의 책, 19~20면 참조.

2. 동북 아시아 이주민의 연극 활동

동북아시아로의 이주는 크게 상해 부근과 연해주 부근으로 대별되는데, 사회주의 국가 체제 지배하라는 공통성과 함께 중국과 소련이라는 국가적인 특성, 동포들의 활동상 등에서 차이점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두 지역 모두 교민 사회의 거국적인 행사에서 연극 공연이 주요 행사였다. 이것은 재미 한인의 상황과 같은데 구체적인 자료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제10회 원동대회 회보

먼저 「제10회 원동대회 회보회석상에서 출연한 연극국교단절의 대의」(1924년 2월 8일⁴²⁾라는 안창호의 문건류에는 ‘한민학교’의 원동대회에서 <국교단절(國交斷絶)>이라는 연극을 공연할 터인데, 안중근이 출연하게 될 것이라 쓰여 있다. 결국 일본의 제지에 의해 무산됨으로써 계획에 그쳤지만, 기념식에서 연극이 주요 행사 중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전의 독립운동가 자료 중 “재 블라디보스톡 조선인 연예회 정지의 건”에서도 안창호의 보고서를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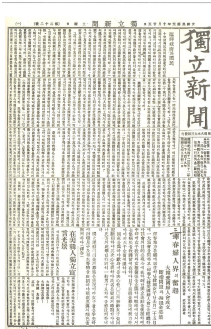
이 지역 개척리 한민학교에서 조선인의 연예회를 다시 개최하는 계획을 정지하는 방안에 관한 건. 당시 경찰서장과 교섭을 한 바, 키도木藤 통역관이 목사 최관홍(崔寬屹)로부터 들은 이야기 및 다른 정보에 의하면 경찰서장은 2월 2일 오후 조선민회 회장 김학만(金學萬)을 소환하여 상기의 계획 중에 연예회를 정지하고, 동시에 향후 엄격하게 계획하여 금지의 명을 내렸다. (...) 이에 승낙을 받았지만 이 계획도 반드시 본문과 같이

42) 안창호, 「제10회 원동대회 회보회석상에서」(1924년 2월 8일), 독립기념관 독립운동가 자료, 자료번호 1-H00608-000.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첨부하여 신청한다.⁴³⁾

위의 기사문을 보면 미주와 비교했을 때, 동북 아시아 국가로 이주한 교민들이 보다 억압적인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예회가 불허되자 안창호는 다시 승낙을 받고자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것도 무산되고 마는데, 당시 재미 한인 사회에서 아무 제재 없이 공연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상반적인 현실이었음을 보여준다.

상해 공연 보도에는 특히 3·1절 관계 기사가 자주 띄는데, 당시 중국에 거주했던 교포들에게도 미주와 마찬가지로 기념적인 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공연되는 연극은 동포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수단이었고, 단합의 장이었으며 여흥으로서의 불거리였고 자선금 마련의 기회이기도 했다.



<그림 5> 상해 『獨立新聞』 1919년 8월 2일 창간, 초대 사장 이광수, 주권 부장 주요한

安昌浩(안창호 氏 司會로 상해 블란서(프랑스) 조계 하비료 上海 佛租界 霞飛路)에 근거를 두고 조선○○운동을 하고 있는 조선인들은 삼월 일일 오후 한시부터 민국로 심령당(民國路 心靈堂)에서 제 구회○○○○기념제(第九回○○○○記念祭)를 거행하였다는데 조선 사람 삼백여 인이 모여 안창호(安昌浩) 씨의 개회사를 비롯하여 교민단장 위혜략(僑民團長 韋惠栢) 씨의 ○○운동 통계조사에 대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며 여러 유지의 연설이 있었고 동 세시 반에는 일동이 ○○가를 부르고 ○○○○에 향하여 예배를 하고 즉시 ○○○○을 하고자 하였으나 예정을 변경하여 잠깐 해산을 하였다가 그날 밤 심령당에서 다시 연극회를 개최하였었다더라.⁴⁴⁾

43) 「在浦潮朝鮮人演藝會停止ノ件」(安重根演劇・安昌浩演說[憲機제378호 ; 1911년 2월 17일]), 『日本外交史料館資料』.

44) 「상해삼일기념(안창호씨 사회로)」, 『東亞日報』(1928년 3월 13일).

인용문에서 제시된 바 “조선○○운동”을 하고 있는 조선인 삼백명이 심령당에 모여 3·1 운동 기념식을 거행하였는데, 낮에는 안창호(安昌浩)의 개회사를 비롯한 유지의 연설 등 삼일절 기념 순서를 갖고, 휴식 후 밤에 모여 연극회를 개최하였다는 내용이다. 이때의 연극 공연은 하나의 축제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망국과 실항 타국에서의 소외 등 질곡의 현실에서, 조선인들이 함께 모여 단합을 공고히 하고, 서로 즐길 수 있는 장으로서 연극이 필요했을 것으로 짐작된다.⁴⁵⁾

삼일절 기념극의 소식은 이 외에도 여럿 보도되고 있는데, 다음의 기사문에서 보다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다.

지난 三月一日 우리 獨立宣言紀念日 에 南京에 在留하난 同胞들은 當日 午前八時半부터는 當地 協進會館에서 가장 壯嚴한 紀念式을 舉行하고 正午에난 全體 同胞가 한 食卓에서 午饌을 함께 먹고 니어서 紀念寫眞을 박인 後에 밤 七時半부터난 同地 우리 東明學院에서 林昌模 吳裕政 等 諸氏의 出演에 係한 우리의 獨立運動을 背景으로 한 「百年의 功」이란 演劇을 가장 意義 깊고 滋味있게 興行하고 茶菓를 난흔 後 同十時頃에 散會하였

45) 다음의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국가적인 축제에 있어서도 연극이 필수적인 행사의 하나였음을 보여주는데, 『독립신문(獨立新聞)』의 「삼월십오일의 아국혁명기념일」(1920년 3월 18일)에서는 짜르 제정의 붕괴와 새로운 민주정 수립을 축하하기 위해 공연을 했다는 소식이다. 당시 독립운동을 한 거점지였던 중국의 변화는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도 희망적인 징후로 여겨졌고 그래서 아래의 인용 기사를 보면 축제의 분위기를 보인다. “上海中國青年會館에서 三年前 一千九百十七年 三月十五日 午後三時에 立憲民主黨首領 밀류코브氏は 當時 國會議場이던 타우리다宮의 前面에 나서서 熱狂하는 民衆에게 차르의 帝政이 終하고 民主的臨時政府를 建設하기로 決議되었음을 宣佈하다 (….) 共公租界警察의 注意로 一切演說을 廢하고 音樂과 朗讀과 演劇으로 겨우 이 大國民의 胸中에 사모찬 感激을 풀게 十時頃하야(….) 上海大韓人民團長 呂運亨氏와 本社長 李光洙氏가 入場하매 司會者는 「只今 韓國獨立運動의 志士가 來臨하였스니 이를 機會로 하야 우리는 우리 俄國人民을 代하야 韓國의 獨立을 祝함이 엇더하나」 하매” (「三月十五日의 俄國革命紀念日」, 『獨立新聞』(1920년 3월 18일)).

더라(南京)⁴⁶⁾

三月一日은 五年前 우리가 獨立을 宣言한 날임으로 우리가 이날은 永久히 紀念할 國慶日로 定하여 年年 各地에서 이날을 慶祝하여오는바 今年 이날에도 例年과 如히 各地에서 盛大한 祝賀式을 舉行할 것은 勿論이 어니와(…)我女子界主催의 國慶祝賀演藝會 南京 韓人基督女子青年會에서 上海 各女子界의 後援을 得하여 當日 下午七時부터 當地 幕爾堂에서 演藝會를 開하고 年前 國內에서 愛國婦人會가 獨立運動을 爲하여 活動하다가 敵에게 잡혀 困辱當하던 光景으로써 脚本을 만드러 演劇한다는바 當日 入場料의 收入은 當日의 經費를 除하고는 疾苦에 陷하여 依支할 데 업는 불상한 女子의 救護費에 充用한다더라⁴⁷⁾

이날 저녁 일곱시 부터는 당지 청년회관에서 유희회를 열었는데 남녀 청년동지들이 여러날 연습한 음악 창가 무도 요술 연극 가곡 등 여러 가지 절목으로 표현하여 내외국 관중 천여 명에게 대 환영을 받았다. 그중 음악대는 임시로 조직하여 연습이 충족치 못하였음에 불구하고 보통 음악대에 비하여 손색이 없었고 어린이들의 유희창가 창가대의 합창 연미당 이복영 이국영 김병인 김철 유해준 제씨의 독창 방순희 여사의 무도 김철 씨의 □넷 독주 진준호 씨의 바이올린 독주 안병무 김철량 씨의 요술이 다 많은 환영을 받았으며 왕형 송민수 양씨와 오광심 여사를 주각으로 한 『삼일훈』이란 연극이 많은 환영을 받았는데⁴⁸⁾

상해 지역에서 발간된 『독립신문(獨立新聞)』과 『한민(韓民)』⁴⁹⁾의 내용들이다. 첫 번째 기사문은 「남경에 삼일절」(『독립신문』, 1925년 3월 23일)

46) 「南京에 三一節」, 『獨立新聞』(1925년 3월 23일).

47) 「三一節慶祝集聞」, 『獨立新聞』(1923년 3월 1일)

48) 「遊興」, 『韓民』(1938년 3월 1일)

49) 1936년 1월 김구의 주도로 창단된 한국국민당에서 발간한 신문 이 신문에는 항일 독립투쟁을 고취하는 기사가 많았다.

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 이주민들이 3·1절을 맞아 기념식을 거행하고, 동명학원에서 마련한 <백년의 공>이라는 연극을 관람했다는 보도가 게재되어 있다. 두 번째 기사문은 「삼일절경축회문」(『독립신문』, 1923년 3월 1일)으로 3·1절을 맞아 남경의 “한인기독교녀자청년회”의 연극 공연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세 번째 기사 「유흥」(1938년 3월 1일)에서도 저녁에 이날을 축하하는 행사를 가졌는데,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음악, 창가, 무도, 요술, 연극, 가극 등에 걸쳐 공연을 하였고 내외국 천여 명이 넘는 관객이 갈채를 보냈으며, 특히나 <삼일혼>이란 연극이 많은 환영을 받기도 했다는 내용이다. 제시된 기사를 보면 3·1절 행사와 그와 관련된 연극 공연은 당시 어디에 있던 해외 한인들에게는 큰 행사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억압적인 상황에 처해 있던 국내와 달리 대대적인 행사를 벌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이다.

공연 주최측도 재미 한인들과 유사한데 청년회나 학생회, 부인회, 공청회 등이 공연을 주도했다. 주목되는 몇 개의 기사들을 검토해 보자면 먼저 「인성학교상황」(『독립신문』, 1920년 3월 25일)을 들 수 있다. 이 학교는 거류민단에 의해 설립된 학교로 상해 한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학생회 연극 소식에서 자주 거론되곤 했다.

昨年 第一回畢業式을 舉行한 上海韓人仁成學校는 居留民團의 事業으로 現議政院議長 孫貞道氏를 校長으로 하여 發展을 計劃中인데 去月에는 少年劇을 北京路十八號에 開催하여 好成績을 得하고 器具 其他의 設備는 着着進行中으로 前途가 括目할 만하다⁵⁰⁾

인성학교에서는 학생 중심의 ‘소년극’을 개최하여 반응을 얻었는데, 이 어지는 기사문을 보면 구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⁵¹⁾ 이런 식의 공연은

50) 「仁誠學校狀況」(『獨立新聞』(1920년 3월 25일).

51) 「仁誠學校生徒」(『獨立新聞』(1920년 1월 10일).

「인성학교연예회」(『독립신문』, 1923년 2월 7일)에서도 보이는데 아래 인용문을 보면 학교 자체의 경비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 공연을 개최했다는 내용이다.⁵²⁾

上海我民團經營에 屬한 仁成學校는 매양 經費의 困難으로 因하여 當務 한 諸氏가 자조 難堪한 境遇를 當하는바 當校에서 幾多의 收入을 얻어 經費에 補助키 爲하여 來十日(土曜) 下午七時 三一堂에서 演藝會를 開한다는 데 여러 가지 재미있는 音樂, 歌曲과 演劇이 잇서 한번 볼 만하겠다더라⁵³⁾

학생층 뿐만 아니라 부인회에서도 연극을 주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예로 「아애국부인회(我愛國婦人會)의 가무극대연주회(歌舞劇大演奏會)」(『독립신문』, 1922년 3월 1일)를 들 수 있다. 이들도 재미 한인 ‘부인구제회’와 같이 사회 자선을 위한 기금 마련의 공연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위에서 살펴 본 내용들은 주로 중국 상해 등지에서 보도된 자료들인데, 이와 비교하여 당시 연해주 등지로 이주해 간 한인들의 연극 활동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롭다. 먼저 1924년 10월 28일 『선봉(先鋒)』⁵⁴⁾에는 「선봉을 위하여 연극」이라는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공산청년회’의 연극 공연 소식이다.

그로제소브디방 창신리 공산청년회에서는 지난음력 추석날에 연극을
 하여 입장료三十여원은 선봉신문에 기부하기로 하며 여자대표회에서도

52) 「女夏期演劇會」(『獨立新聞』(1922년 8월 12일)를 보면 타 여학교에서도 인성학교를 돕기 위해 “연극회”를 개최하고 의연금을 마련하고 있다.

53) 「仁成學校演藝會」(『獨立新聞』(1923년 2월 7일).

54) 연해주로 망명한 고려인들의 삶의 자취가 담긴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신문으로 1923년 소련 연해주 원동에서 발간되었다. 이와 비교하여 당시 발간되었던 『新韓民報』는 재미 동포 사회의 신문으로서 배우 양성에 관한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으나 연극 공연 소식이나 희곡 관련 기사들이 많이 실려 있다.

연극을 해야 항공대에 연조하기로 하였다.⁵⁵⁾

청년회에서 추석을 맞아 연극을 공연했고, 입장료 수익금 30여원은 신문사에 기부하였으며, 여자 대표들도 공연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 수익금을 항공대에 보낼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일종의 기금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연극이 공연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구제금 마련을 위한 공연 소식은 「학비곤란으로 연극」(『선봉』, 1926년 1월 21일)에서도 드러나는데, 순회 공연을 기획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소왕영시 고려사범학교안에 공청회와 학생자치회와 협동하여 연극단을 조직하고 각디순회홍행하여 그수입금으로는, 구차한학생을 돕아주기 위하여 작년十二月경에 창신리에가서 연극을 흥행하여 입장료六십여원과, 의연금六十三 원을 동정함에 당디공총화 의회 동남소당국자들이 힘써주었다고⁵⁶⁾

고려 사범학교 공청회와 학생회에서 학비가 곤란한 학생들을 돕기 위하여 연극단을 조직하고 순회 공연을 하였으며 그 수익금과 의연금을 모아 기부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연해주 지역의 신문에서는 재미 한인이나 상해 이주민 사회와 달리 위와 같은 “연극단” 조직의 기사가 자주 게재된다는 점이다.

「라파크연극단의 농촌순회」(『선봉』, 1930년 1월 8일)를 보면 라파크연극단은 일종의 아마추어 연극단으로서 농촌 계몽을 위해 결성된 단체이다.

한끼이를향하고나간다 해삼시에있는 로동학원고려반은 지금까지농촌

55) 「선봉을 위하여 연극」, 『先鋒』(1924년 10월 28일).

56) 「학비곤란으로 연극」, 『先鋒』(1926년 1월 21일).

과의 밀접한연락을취하여본일이없었다 이것을유감으로한 학생일동은 동기방학일-18일에 농촌단합화외문화사업의 직접연락과 로동학원내 문화사업향상에대한 물질덕나□후신을얻기위하는목덕을가지고 10여명의인원으로 연극단을조직하여 특히한끼이구역으로과견하기로하였다 여기에서 우리학생일동이 한끼이구역내각농촌여성자-당, 공청회원동무들에게권한다 아직도심히경제적덕으로구차한학생10여명이 그구역로나가게되니 그에대한후원과 이상에지덕한두가지목덕을완성하게하여주어야 할것을 크게원하는바이다.



<그림 6> 「라파크 연극단의 농촌순회」

당시 해삼위의 “로동학원” 학생들은 동기 방학을 맞아 농촌 단합과 농촌 문화 사업을 위한 계몽활동을 벌였고, 문화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을 위하여 연극단을 조직하였다. 새로이 조직된 리파르크 연극단도 동기 방학 기간에 농촌 순회 공연을 계획하고, 우선 조직된 10여명의 인원들은 빈한한 ‘한끼이’ 지역으로 과견될 준비를 하였다. 이 기사 내용은 당시 국내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문맹퇴치를 위한 농촌계몽 활동과 비교된다.⁵⁷⁾

57) 한글운동에 관한 논의는 1920년대 후반부터 ‘조선일보사’와 ‘동아일보사’가 펼쳤던 문자 보급 운동 및 농촌 계몽 운동에 관한 기사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의 『東亞日報』, 『朝鮮日報』 두 신문의 기사들을 보면 지식인 학생에 의한 한글운동이 얼마나 활발하였는가를 실감하게 된다. 하기 방학 뿐 아니라 동기 방학에도 지방 곳곳에서 실시된 ‘한글강



<그림 7> 문자보급 관련기사들

이 지역 이주민 작가의 희곡을 보면 전통적인 노래 가락이 빈번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징은 연극 공연이 주로 작업 현장을 순회하며 동포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또한 극단의 순회공연은 동포들의 민족적 정서를 융화할 수 있는 강력한 매개체 기능을 했다.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림 8> 원동 고려인 순회극단 (1931년 5월 1일)

이들에게 있어 순회 연극 공연은 한 장소에 모여 소원했던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교제의 기회를 제공했다. 연극 관람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민족 정체성을 간신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⁵⁸⁾

일반인들의 연극단 조직은 매번 구제 의연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데, 「여자대표연극단의 출연」(『선봉』, 1931년 5월 31일)에서도 뽕크롭까구역 신길동의 ‘반송동여자대표회’에서는 여자연극단을 조직하고 기아로 고생하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자선 공연을 개최했다고 보도되었다. 뿐만 아니라 「3월 27일에 연극·음악회」(『선봉』, 1930년 3월 21일)에는 ‘시내사무원직업회 구락부’인 “떼. 떼. 에쓰”라는 노동자 주최의 연극, 음악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보도되고 있는데, “조선연극 중극가극” 등을 공연하여 수입되는 금액은 고려인 구역의 콜호즈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쓰여 있다. 특히나 이 기사는 다름 아닌 노동자들이 주최하는 연극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좌) ‘한글강습회’ ‘한글야학’ 등의 기사들이 보도되고 있으며, 하기 계몽 운동의 성과가 속속 보고되고 있는데, 그 성과가 지대했음을 알 수 있다. 윤금선 「일제강점기 신문에 나타난 국문론」, 『한국언어문화』 제24집, 2003, 한국언어문화학회 313~314면.

58) 박명진,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에 나타난 민족 정체성-희곡텍스트를 중심으로」, 『인문연구』 제48집,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5, 55~56면 참조

연극단 조직과 함께 특기할 내용은 해삼위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들의 배우 양성에 관한 소식이다. 그 예로 1927년 7년 31일자 『선봉』에 게재된 「고려활동사진 배우강습소 개학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고려활동사진 배우강습소’에서 배우를 교육시키고자 개학식을 예정하고 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는 ‘고려 활동 사진’의 배우 양성을 위한 것이었다.⁵⁹⁾ 연극이 아닌 영화의 경우지만, 해외 이주민으로서 국내와 다른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소련은 체계적인 영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⁶⁰⁾ 이의 영향력으로 보여진다.

위에서 다룬 기사 외에도 「연극 놀아야학을 돕다」(『선봉』, 1926년 1월 16일), 「연극으로수입된륙십원을학생공리사에」(『선봉』, 1926년 6월 3일) 등에서도 의연금 마련을 위한 공연 활동을 볼 수 있는데, 전자를 보면 당시 시지미 촌이라는 곳에 일곱 개의 계몽소가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다.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공청회에서는 연극을 공연하

59) 윤금선, 「1920~40년대 배우양성론과 그 활동 양상」, 『한국언어문화』 제30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6, 203면 참조

60) 이에 관한 내용은 박을라(朴乙羅)의 「모스꾸바 映畫學校 參觀記」에 잘 나타나 있다. 제목 그대로 필자가 탐방한 ‘모스꾸바 映畫學校’를 소개한 글이다. 이 학교는 촬영과, 감독과, 각본과, 기술과, 배우과를 두고 사회정치과목, 예술과목, 전문과목, 기술과목, 일반교육과목 등 다양한 과목으로 교육했다. 세부 교수 과목을 보면 예술과목의 경우 예술방법론을 비롯하여 극작술, 연극학, 음악학에 외 다양한 과목을 교수하였고, 전문과목에서도 영화사, 감독술, 제작방법론, 시나리오 등과 그 외의 과목을 가르쳤으며, 기술과목에서는 영화기술과 관화 등의 과목을 교수하였다. 또한 영화를 ‘예술영화’, ‘군사영화’, ‘과학영화’, ‘정치영화’, ‘아동영화’ 등 5부분으로 세분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 영화학교는 일부 교수 과목을 보아도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학생 수는 595인으로 최연소자 18세부터 최연장자 35세까지가 있었는데 교육 기간은 3년(6학기)였다고 한다. 특히 이 글에서는 배우과 교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 배우술, 무용, 어법, 화술, 분장과 의상 등과 그 외 다양한 과목에 걸쳐 배우를 교육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朴乙羅, 「모스꾸바 映畫學校 參觀記」, 『三千里』 제7권 제7호(1935년 8월 1일), 143~145면 참조).

였고, 그 흥행료는 바로 각 계몽소로 보내어지기도 했다. 후자는 학생들을 위한 공연 소식으로, 학교와 사회 사업을 위한 학생들의 연극 활동이 활발했음을 볼 수 있다. 이렇듯 다양한 구체 목적을 지닌 채 연극이 공연 되었는데, 이는 재미 한인 사회와 유사한 양상이다.

지금까지 동북아시아의 공연 활동을 살펴 본 바, 특히 상해 중심의 교포 사회에서는 재미 한인의 공연 활동과 유사한 측면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금 마련을 위한 공연이 자주 열린다든지, 3·1절과 같은 대대적인 행사에서 연극을 통해 이주민들이 단합의 장을 마련하는 것 등은 미주에서도 보여지는 바였다. 또한 연극 주최측도 청년회나 학생회, 부인회, 공청회 등으로서 유사한 단체가 주도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특기할만 것은 연해주 중심의 이주민 소식에서는 삼일절 관련 공연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공연 보도를 다룬 인용 기사들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하기 전으로서 이 시기의 이주민들은 비교적 강력한 민족의식과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고 있었고, 희곡 작품도 조선에 대한 사랑을 주로 다룬 애국적·민족적인 경향을 지닌 조선과 조선 해방에 관한 작품들이었다.⁶¹⁾ 그런데 공연 보도에는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 이는 미주나 상해와는 상대적으로 소련 이주민 사회가

61) 강진구(2004)는 고려인 문학을 3기로 나누고 있다. 1기: 조선에 대한 사랑을 주로 다룬 애국적·민족적인 경향의 문학작품. 시기별로는 강제 이주당하기 이전에 주로 창작된 작품들로서 그 주요 무대와 내용은 모두 조선과 조선 해방에 관한 것이었다. 주요 작가와 작품으로는 연성용의 <장평등의 횃불>, <올림픽>, 최계도의 <동해의 기적>, 김기철의 <동명 박지상> 등을 들 수 있다. 2기 강제 이주 이후 중앙아시아에서의 작품 활동 시기로 중앙아시아에 이주한 후, 작가들은 더 이상 조선에 관한 것을 쓸 수 없었다. 오직 소련·소련 내에서의 활동이나 당과 스탈린 찬양에 관한 것만 써야 하는 일종의 '주문문학'이었다. 모든 작품에는 레닌과 스탈린에 대한 찬양이 들어 있었다. 3기: 개항 이후의 문학으로 이른바 '자유문학' 시기의 작품들로서 작가들은 그동안 억눌렸던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기 시작했다(이명재 외, 『좌담: 재소 고려인 문학의 특징과 발전 방향』, 『억압과 망각, 그리고 디아스포라』, 한국문화사, 2004, 358~359면 참조).

보다 더 억압적인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주에 비해 연극단 조직이 활발하였으며, 주로 농촌 계몽을 위한 연극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방학을 이용하여 순회 공연 등을 기획했었다는 점도 주목되는데 여타 지역에서 드러나지 않은 활동상이기도 하다.

Ⅲ. 극의 내용적 고찰

이 장에서는 공연의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것은 희곡의 내용을 살펴 보는 것과도 같다. 특히 『신한민보』의 경우 이미 이홍우(2004)에서 1910년대 희곡 작품인 <신무터>(1913), <오동문답>(1914), <신무터의 톱극기>(1914), <아브라함의정성>(1915), <국민무터 반도영웅>(1916), <신무터의 망국한>(1916) 등이 분석된 바 있다⁶²⁾

그런데 본고에서 다룬 공연물들은 주로 1920년대의 것으로, 텍스트가 부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신문에 게재된 동시대 공연 비평이나 내용 소개를 중심으로 한 연극학적 사실을 준거로 하여 분석하고자 하며, 보도 자료를 통한 사회 반응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새로이 보이는 연극 제목이나 공연 내용들도 주목되는 바가 많은데, 희곡 분석은 자료들을 더 수집하면서 이후 연구 과제로 돌리고자 한다. 공연 텍스트나 희곡이 부재한 상태에서 단편적인 보도 자료에 기댄 분석이라 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차후 보완될 문제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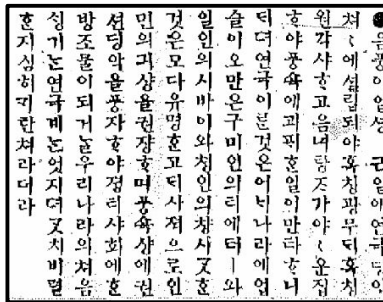
62) 이홍우, 「1910년대 재미 '신한민보' 소재 희곡 연구」, 『한민족어문학』 제5집 한민족어문학회, 2004, 1~64면 참조

1. 재미 한인의 공연 내용

1) 풍속개량과 정신고취의 연극

『신한민보』는 연극과 희곡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신문이다. 「음풍이일성」(『신한민보』, 1909년 4월 2일)에서는 당시 국내 소식을 전하는 보도란에 새로이 설립된 ‘원각사’ 공연 소식을 게재하고 있는데, 그 공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음녀탕자가운집하야풍속에 피
 썩힐일이만타흐니(…)모다유명흥
 소덕사적으로인민의괴상을권장
 하며풍속상에권선징악을풍자하
 야정티사회에 흥방조물이되거늘
 우리나라의쳐음침기는연극계는
 엇지더곳치비렐흔지심히기탄쳐
 라더라⁶³⁾



<그림 9> 「음풍이일성」

인용된 기사문에서 드러낸 부정적인 논의는 당시 국내에서도 지적되었던 것으로서⁶⁴⁾ 생략된 기사문에서는 “구미인의티에터.와일인의시자이와청인의창사”를 가치있는 연극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연극들은 인민의 기상을 드높이고 권선징악의 교육적인 연극이기 때문에 좋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평은 계몽주의적 연극관에 토대를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동해수부’리는 필자가 쓴 「연극의희문이풍속기량과정신고취에필요함」

63) 「음풍이일성」, 『新韓民報』(1909년 4월 2일)
 64) 新門內 圓覺社는 新演劇을 設行하야 風俗을 改良하고 民智를 發達케한다고 各報에 廣布하더니 近日에 春香曲, 沈清歌로 湯자 淫婦의 耳目을 眩惑케 하야……(『大韓每日申報』, 1909년 3월 13일)

(『신한민보』, 1914년 9월 10일)이라는 논설 또한 주목된다. 이 글은 크게 ‘연극희문의간단한력스’, ‘연극의필요’, ‘한인가운데큰더술가이이는가’라는 세가지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펼치고 있다. 첫 번째 논의는 서구극과 우리 전통극에 대한 평으로서 먼저 서구극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대개연극의종류가 두가지가잇스니 왁 락극 비극이라 고딕서양희랍극에 유명훈학자들이 비락 량극의희문을만히더술하야 그 빅성의풍기를지도함으로 희랍의문명이첫지되었고 그후에로마제국사람은 희랍의연극을모본하야슴으로 로마의문명이또한최고도에달하엿고희랍과 로마의문명이서편으로흘러영식지밧춤에 영국의 썩쓰피어갓훈문장이 락극 비극이 희문을만히더술하야그빅성의 충의용감니스상을풍족히너여쥬엇슴으로오늘날 영국인의성질이활발한티도가만음은다썩쓰피어의준 비라.⁶⁵⁾



<그림 10> 「연극의희문이풍속기량과정신고취에필요함」

필자는 서양의 극을 희극과 비극 두 가지로 나누었다. 희랍의 학자들이 두 장르의 연극을 창작하고, 또 이를 통해 백성의 풍기를 지도했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하게 되었으며, 로마도 이를 모본으로 삼아 창작했기에 문명이 최고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로마의 연극은 다시 영국으로 전해져 셰익스피어와 같은 대문호를 탄생시켰고, 그의 작품 또한 충의 용감 사상을 내포한 연극이었기에 영국의 문화가 발달하게 된 것이라는 논지다.

이렇듯 필자는 서구극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는데, 그것은 서구

65) 「연극의희문이풍속기량과정신고취에필요함」(『新韓民報』, 1914년 9월 10일).

극이 ‘풍기지도’, ‘충의 용감 사상’ 등을 지녔기 때문이며 그것은 바로 문명국을 만드는 원천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름아닌 계도적인 연극관에 바탕을 둔 논의라고 할 수 있다.

동해수부는 이어서 서구극과 대비된 우리의 전통극에 대해 거론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연극이라고 할 수 있는 것과 희문이 존재했지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하층 계층에 맡겨 둬으로써 음란한 풍속을 이루었다고 비판한다. 작품의 예로 든 것이 <춘향가>와 인형극 <박첨지>인데, 특히 “춘향가와 갓흔정타에 관한락극을 잘기량하야구락부나연극무티”에서 공연하면 인민의 풍기를 개량하게 될 것이라고 제언하고 있다.

두 번째로 논의된 것은 “연극의필요”인데, 여기에서는 문학 교육 뿐만 아니라 ‘보통교육’에 연극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 근거로 다음의 내용을 들고 있다.

인류사회의 동작하는진경을 글로쓰고말로 던하야 보는 자료하야곰 감동하기 쉽게 하며 재미있기쉽게함이니이것은우리가연극의 데—하등디위에쳐흔 활동사진을 구경하여도 가히 알지라⁶⁶⁾

필자는 동작을 통해 전하는 연극만큼 관객으로 하여금 감동과 재미를 쉽게 이끌어내는 장르는 없다고 본다.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연극을 통하여 사회의 풍속 개량과 함께 조국애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논의에서는 타 장르와 비교해 볼 때 연극(희곡)에는 유명한 저술가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연극 창작의 훈련을 통해 풍속을 개량하고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작품이 나오게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6) 「연극의희문이풍속기량과정신고취에필요함」, 『新韓民報』(1914년 9월 10일).

「연극의희문이풍속기량과정신고취에필요함」에서 논의된 연극 인식은 당대 국내의 시각과 유사하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계몽주의적 연극관은 개화기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온 것으로서⁶⁷⁾ 1910년대의 연극관도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특히 당시 국내에서 일던 계몽주의적 연극관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전통 연희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연극을 주장하고 있는 연극 개량론이었다. 인용 기사에서 논의된 내용도 바로 이와 부합되는데, 연극의 사회적 효용성에 대한 신뢰와 함께 전통 연희에 대한 불신이 자리잡고 있으며, 서구 편향성⁶⁸⁾을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초기 재미 한인의 연극은 이민 1세대에 속한 것으로서, 앞서서 지적한 계몽적인 연극관이 기반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실제 공연된 연극 내용들은 이에 상응하여 민족의식 고취의 계몽성이 주를 이루었다.

「연극준비」(『신한민보』, 1914년 2월 26일)를 보면 ‘대한인국민회’의 총회장 취임식에서 연극이 개최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티극기>라는 제목으로 보아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내용으로 보여진다.

이번 총회당 취임식에 여흥을 도읍기 위하야상항인 연극가들은 신무대에티극기(新舞臺太極旗)란 연극을시로편성 하얏다더라⁶⁹⁾

『신한민보』의 「상항동포의 망년회 연극과 기도회로 송구영신」(1924년 1월 3일)이라는 기사를 보면 교포들의 송구영신 모임에서도 연극이 공연되었는데 그 내용은 반일 의식을 부추기는 것이었다.

67) 양승국, 「1920~30년대 연극 활동론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2, 23면 참조

68) 양승국, 『한국근대연극비평사 연구』, 태학사, 1996, 239면 참조

69) 「연극준비」, 『新韓民報』(1914년 2월 26일).

이 연극은 강창준씨가 극본을만드러난뒤 원래 우리 학생들이 모다 고 학생임으로 시간이 없습슴으로 단출한 두막의 극본을 꾸미여 반일동안 연습하여 가지고 무대에 나섯다 한다 극의 제목은 [복수]라고 하였다. 이 극의 극막을 간단히 소기 하자면三一운동선심이 광복 사업에 대활동 하다가 적의 형사에게 피살한후에 그부인이 안선싱 묘소에 가서 통곡하며 일본의 무도 잔포함을 혼자 말로 설화 할시에 박형사라 하난자 보고 그부인까지 죽였습슴으로 그의 아달 안보국이 그부모의 원수 갚기 위하여 만주로 건너가 모든 독립단과 연락하다가 필경 그부모의 원수를 갓고 그동지자들은 계속하다가 광복 사업에 로력한다 함이다.⁷⁰⁾

위 기사는 연극 공연과 관련된 부분만을 인용한 것인데, 앞 부분을 보면 재미 한인들은 송구영신의 밤에 모임을 갖고 모여 덕담과 독창이 이어지고, 일제하 본국조선의 생활난과 청년들의 입학난을 보고하고, 조국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결의를 하는 등 동포애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의 “비극 연극”인 <복수>를 공연했다. 연극이 공연되기 전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공연 직전의 한인들은 애수와 결의와 분노에 찬 상태로 이후의 관극 체험은 남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비극’의 내용을 정리하면, 강창준 작인 <복수>는 3·1 운동 배경의 2막극이다. 주인공 “삼일운동선생”은 “광복 사업” 활동을 하다가 일인(日人) 형사에게 피살당한다. 이를 원망하던 부인까지 피살당하자 그의 아들 “안보국”이 만주로 건너가 독립단과 연합하여 부모들의 원수를 갚는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결말 구조는 해피 엔딩(happy-ending)인데 굳이 비극이라 칭한 것은 일본인의 학살로 부모를 모두 잃은 안보국의 처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인은 지독한 악인으로 그려져 반일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로, 광복, 독립이야말로 이 악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내세워져 있다. 당시 관객들에게는 주인공의 시련과 좌절, 재기와 복수는

70) 「상항동포의 망년회 연극과 기도회로 송구영신」, 『新韓民報』(1924년 1월 3일)

극중 개인사라기보다는 한인 이민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여졌고 공감대를 형성했기에 극찬을 보내기도 했다.⁷¹⁾

3·1절과 관련된 연극 소식은 「3·1절 부인들의 연극을 보고 얻은 감상」(『국민보』, 1937년 3월 10일)에서도 보이는데, 이 기사에서 주목되는 점은 하나만이 아닌 여러 개의 공연물로 다양한 주제의 연극이 개최되었다는 점이다.

어머니와 아들로써 반드시 불만한 [어머니의 사랑], 삼천리 강산과 대한동포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자로서 반드시 불만한 사회극 [김상옥의 실기], 또한 나라 없이 늘 비감(悲感)에 싸여 있는 우리로서 일시적이거나 웃어보려면 반드시 이번 희극을 보셨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이번 연극에 어느 부인을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다같이 고상한 연극기술을 보여줌에 대하여 더욱 놀랐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연극으로써 일반이 얻은 인상과 느낌은 1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은 물론이요, 3시간 동안이나 마음의 위안을 받은 것만 하여도 1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연극이다. 이번 연극을 보지 못하신 동포를 위하여 재연한다면 우리 동포에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까 하며 물론 연극을 가르치신 홍창기씨의 그 기술과 민활함은 감격할 일이다.⁷²⁾

홍창기 연출로 가정 비극, 사회극과 희극 등 다양한 장르의 극이 공연되었음을 보도하는 기사인데,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어머니의 사랑>은 어머니와 아들의 문제를 다룬 가정 비극이며, <김상옥의 실기>는 애국적인 내용의 사회극이고, 마지막 희극은 늘 망국의 비감(悲感)에 싸여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이거나 웃어보려는 연극이라는 것이다.

3시간에 걸쳐 공연되었다는데, 공연에 대한 평자의 반응도 주목된다.

71) 「상향동포의 망년회 연극과 기도회로 송구영신」, 『新韓民報』(1924년 1월 3일).

72) 「3·1절 부인들의 연극을 보고 얻은 감상」 『國民報』(1937년 3월 10일).

바쁘신 가정주부로서 사회를 도우려는 아름다운 주지 아래 바쁜 일에도 불구하고, 정성껏 준비하여 5·600명이나 되는 많은 청중에게 기쁨과 슬픔과 웃음으로 만족을 줌에 대하여, 이 글을 쓰는 나로서 감사의 치하를 아니할 수 없다. 연극의 경험이 적은 부인들로서 완전하고 아름다운 극의 기술과 예술을 거침없이 줌에 대하여 일반청중은 다 탄복하였으며, 가정 비극을 비롯하여 사회극과 희극을 끝마치도록 연극에 열중한 청중의 고요함이며, 뜻깊은 연극재료와 부인들의 고상한 연극기술과 예술은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내었으며, 새로운 애국정신과 기쁨의 웃음을 한없이 넣어 주었도다.⁷³⁾

5~600명의 관객이 관람하였는데, 청중들은 공연의 기술적인 측면과 작품의 예술적인 측면에 탄복하였고 막이 내릴 때까지 연극에 열중하였다고 보도되고 있다. “기쁨과 슬픔과 웃음”으로 만족을 주어 관객들에게 “새로운 애국정신과 기쁨의 웃음을 한없이 넣어”주었다고 평하기도 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일련의 공연된 연극은 무대의 연출면에서나 작품의 내용면에서 관객의 호응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부인구제회 연극 준비」(『국민보』, 1938년 2월 9일)에서도 부인구제회에서 3·1절 연극 행사로 ‘애국 사상극’을 공연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

부인구제회는 연례를 따라 금년 三·一절에 함지사지후생이라는 문제로 연극을 준비 중인데 금번 연극은 가정극으로 시작하여 三·一 시기를 따라 애국 「사상」극으로 폐막을 하겠고 연극에 액터들은 수十年 내로 역에 익숙한 부인들인 고로 관객자들의 호감을 많이 있겠다 하며 연극을 준비하는 부인들은 중국 난리에 고초를 당하는 우리 동포들의 구제를 위하여 밤마다 연습 중이라더라.⁷⁴⁾

73) 위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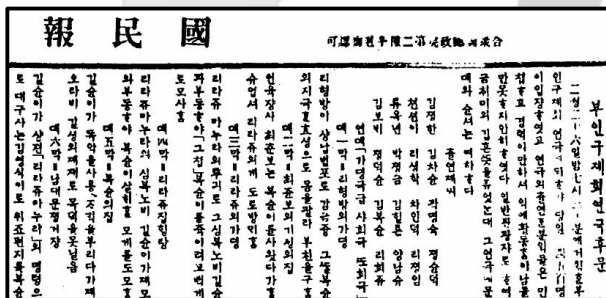
74) 「부인구제회 연극 준비」, 『國民報』(1938년 2월 9일)

이 연극은 “가정극”으로 시작하여 “애국 「사상극」으로 폐막을 하였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종류가 다른 극들의 순서가 아니라 하나의 극을 그 내용에 따라 부분적으로 지칭하였다는 점이다. 다음의 「부인구제회 연극 후문」(『국민보』, 1938년 3월 2일)의 공연 관계 보도 자료에서 구체적인 연극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 극이 전개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출연자 김정환·김차순·곽명숙·정순덕·천선이·이성학·차인덕·이정임·류옥연·박정금·김헬른·양남수·김보배·정덕순·김복순·이희주

연극제목 「가정극 및 사회극 또 희극」

제1막—이형방의 가정 이형방이 상남범 포로 감금중 그 딸 복순의 지극한 효성으로 몸을 팔아 부친을 구함 제2막—최준보의 기생의 집 인육장사 최준보는 복순이를 사왔다가 할 수 없어 이라주에게 도로 팔아버림 제3막—이라주의 가정 이라주 마누라의 투기로 그 심복 노비 길순과 부동하여 그 첩,복순이를 죽이려고 백방으로 계획을 꾸밈 제4막—이라주 집 행랑 이라주 마누라의 심복노비 길순이가 자기 어머니와 부동하여 복순이 살해할 계획을 도모함 제5막—복순의 집 복순이가 독약을 사용, 자객을 부리다가 자기 오라비 길성의 제재로 목적을 못 이룸 제6막—남대문 정거장 길순이가 상전 「이라주 마누라」의 명령으로 대구사는 김영식이로



<그림 11> 「부인구제회 연극 후문」

위조편지를 복순에게 전하여 대구차를 진주차 라고 속여 갈려다가 발각되어 잡혀감 사회극 제7막—이라주의 가정 복순이 곤욕을 당하던 18년 후 복순의 아들 이봉진이 만주 신민부(新民府)로 감 제8막—만주 신민부 명령으로 이봉진·윤길성 양인이 왜장과 한국 역적을 타살함 희극—문제양천대소(仰天大笑)⁷⁵⁾

연극 제목은 <가정극 및 사회극 또 희극>이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인용문을 보면 이러한 분류는 극이 전개되는 내용에 따른 분류임을 확인할 수 있다. 8막에 희극까지 치면 총 9막인데 막이라는 개념보다 장면 변화에 따른 구분으로 보여진다. 1막부터 6막까지는 이형방, 최준보, 이라주 등의 가정을 배경으로 한 일종의 “가정극”이며, 7막에서 8막은 만주 신민부의 응징 행위가 이어지는 “사회극”이다. 희극은 역적이 살해됨으로써 악이 처벌되고 선이 이기는 해피 엔딩(happy ending)의 8막 다음에 해당된다. 제목에서 드러난 구분은 장르 개념이라기보다 막의 주제적인 측면에서의 분류라고 할 수 있다. 내용을 보면 흡사 고전극의 구조를 답습한 듯 선악 구도나 해결 방식 등이 유형적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작품은 1938년의 공연작이다. 같은 삼일절 기념극 인데도 불구하고 초기 이민 세대의 연극과 그 색을 달리 함을 볼 수 있다. 전대의 연극이 주로 민족 정신 고취, 자주 독립의 결의 등 메시지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반하여, 30년대 말의 이 작품은 초기의 민족주의적 정신은 많이 제거되어 있다. 즉 후기로 갈수록 테마도 다양해지고, 하나의 극 안에서 다양한 소재를 다루는 현상을 보인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렇듯 변화된 양상은 다음의 기사문에서도 드러난다.

애국정신을포함하고 한인청년에게 충기발달을보히기로 신구사상의충
돌을 희극으로배경혼속에 연애소설의 희성주의를표시하는 전무혼연극⁷⁶⁾

75) 「부인구제회 연극 후문」, 『國民報』(1938년 3월 2일)

1939년에 게재된 광고성 기사문이다. 제목은 알 수 없지만 연극 내용을 소개한 것을 보면, 애국정신을 포함함은 물론 청년들의 “충기발달”을 위하여 “신구사상”의 충돌을 보여주며, 또 한편 희극적인 배경의 연애를 소재로 한 연극이라는 것이다. 소위 풍속개량을 위한 연극이라고 밝히기도 했다⁷⁷⁾

이승만 박사가 제작한 연극⁷⁸⁾ <근대생활>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기사 제목에서도 드러나지만 “우리의매일시속싱활흐는것을 그려난것이올시다”라는 기사문을 통해 ‘근대’의 생활에 초점을 맞춘 풍속개량의 극으로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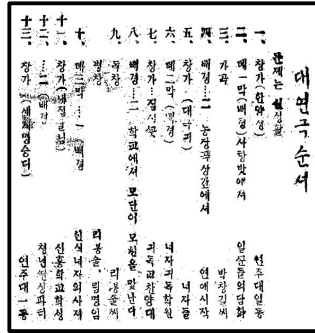
금년에 이연극은참으로 불만흐 연극이외다 연제는(근대생활)이란 문 데로 연극을 홀터이온데내용을말삼흐면 문데와갓치 우리의매일시속싱활 흐는것을 그려난것이올시다 리승만박사씨서 제작흐 연극이되여서 자미 잇고우수운 구절도만습니다 연극은 우리의 유일흐 교육기관인 기독교원 들을위흐야 우리기독교회에속흐 청년회원三十여명이 출연할터이오며 조 혼 노래도 만히잇습니다⁷⁹⁾

이 시기에 또 다른 연극의 진행 방식을 보여주는 기사도 눈에 띄어 흥미로운데, 1938 년도 『태평양주보』의 「대연극순서」의 내용을 소개하는 기사이다.

- 대연극 순서
 문제는 실생활
 一. 창가 한양성 연주대일동
 二. 데-막(배경) 사탕밭에서 일꾼들의 담화

76) 「기독교원티연극」, 『태평양주보』(1939년 2월 25일).
 77) 위의 글.
 78) 앞선 예문에서도 드러나지만 당시 민족 지도자들이 연극을 제작했다는 점도 주목되는 바이다.
 79) 「三·一절연극」, 『태평양주보』(1938년 날자 미상).

- 三. 가곡 박창길씨
- 四. 배경...二 농장곡상간에서 연애 시작
- 五. 창가, (태극과) 여자들
- 六. 데二막(배경) 여자기독교학원
- 七. 창가...접시꽃 기독교찬양대
- 八. 배경...二 학교에서 모단이 모친을 만난다
- 九. 독창 리봉술씨
병창 리봉술, 림명임
- 十. 데三막...(배경) 신식녀자의사저
- 十一. 창가(내집) 님 신흥학교학생
- 十二. ...二 배경 청년 썬싱파티
- 十三. 창가(세계명승대) 연주대 一동⁸⁰⁾



<그림 12> 대연극순서

실생활의 문제를 다룬 이 연극(대연극)은 총 3막으로 각 막의 배경이 제시되어 있고, 막마다 서두와 말미에서 가곡과 합창 등이 불려지는데, 노래와 극의 내용이 서로 상관성이 있는 것인지, 혹은 막간에 삽입된 단순한 노래인지 위 기사만으로는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또한 이 기사에서는 “연극대지”라는 부제목으로 연극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장손이 농정으로 단니며 독립운동을 선전하는데혹은칭찬도하고 혹은 비웃기도한다 캠프썬시의 썬모단이는 장손이의 말을밧으며 속으로사모하나 그부친은 돈만혼신식청년 강요한을사위삼으려하는 눈치를알고 묘단이는 장손이를기다리마약조하며 장손이는 묘단을작별하고 썬난다(...)
장손이본국에가서 혁명운동을다치러노코 호항에도라와서 묘단을차져 썬

80) 「대연극순서」, 『태평양주보』(1938년 날짜 미상).

니사저에와서춤추는거슬 구경하다가 묘단을맞나 반기며노기는데강요한
은 쫄니의구정을 생각하며 두패로갈녀서연애의결국을 맞게되는데 호의
신문으로 원동통신이 전파되어 동경과한성에서 一시에 혁명대란이이러
난다고공포된다⁸¹⁾

등장인물은 장손, 묘단, 쫄니 등이며 ‘사탕밭’, ‘여자기독학원’, ‘신식녀
자의사저’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장손이 농정으로 단니며 독립운동
를 선전하는데”, “장손이본국에가서 혁명운동을다치러노코” 등의 내용에서
여전히 전기와 같은 애국 계몽 사상이 드러나지만, 일상 생활을 소재
로 하고 있으며, 일종의 남녀 삼각관계의 멜로드라마적인 애정 문제가
중심이 되는 극이다.⁸²⁾ 초기에 애국사상 고취가 극의 일반적인 주제였던
것과 비교되는 측면이다.

2) 역사극과 고전 각색극

당시 재미 한인의 연극계에는 역사극 공연이 인기를 얻기도 했다. 1930
년대는 국내에서도 역사극 붐이 일던 시기인데 해외인 이곳까지 그 영향
력이 전해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고전 각색극인 <춘향전>이나 <심청
전> 등이 관객의 호응을 얻었다는 점도 주시할 사항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연극소식」(『국민보』, 1937년 11월 17일)이
라는 기사는 ‘역사적 애국극’ 공연 소식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게재하
고 있다.

81) 위의 글.

82) 「찬성원 특대권」, 『國民報』(1938년 5월 11일)에서도 “본회를 찬성하시는 일반동
포께 감사하는 뜻을 표하기 위하여 연극을 준비하였습니다. 연제 = 봄날과 사
람마음”이라는 기사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제목에서 드러나지만 이것도 일상생
활의 감정을 다룬 멜로드라마적 성향을 띠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 연극의 제목은,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말엽 즉 백제말년에 피끓는 충신 우인과 그의 딸 목화가 강철같은 굳은 결심을 가지고, 넘어가는 조국을 위하여 헌신 분투하던 사적(史蹟)을 여실히 보여주는 역사적 애국극이다. 문제도 제값을 지고 있거니와 우리 한인사회에서 익숙히 아시는 국민총회(國民總會) 부회장 안원규(安元圭)선생의 부인이신 안정송여사께서 발분망식(發憤忘食)하고 지도에 열중하신 터이다 여사는 본래 예술계에 소양이 풍부할 뿐아니라, 우리 역사에 정통한 관계상, 이 연극에 나타나는 모든 사실이 적어도 연극의 제목 그대로 관람하는 이들로 하여금 울고 웃고 피를 끓이는 비분강개(悲憤慷慨)·장절쾌절(壯絶快絶) 한 일대 애국극이 되리라고 확신하는 바이다.⁸³⁾

‘역사적 애국극’이라 칭한 이 극은 삼국 시대 백제 말년이 배경인데, 충신 우인과 그의 딸 목화가 위기의 조국을 위하여 헌신 분투하던 사적(史蹟)을 내용으로 한다. 당시 국민총회(國民總會) 부회장 안원규(安元圭)의 부인인 안정송이 지도를 하였다는데, 기자의 평에 의하면 관람하는 이들로 하여금 울고 웃고 피를 끓이는 “비분강개(悲憤慷慨)·장절쾌절(壯絶快絶)”한 일대 애국극이었다고 한다. 조국 상실의 현실을 역사극을 통하여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애국정신을 함양시키려는 극으로 보여진다.

「대학교 보성회 연극」(『국민보』1938년 1월 26일)에서도 역사극 공연 소식이 보도되고 있다.

속종대왕의 셋째 왕후이신 민중전 사적을 본위로 한 역사극을 하기로 작정하고, 공부여가가 있는 대로 이용하여서 분망(奮忙)한 준비를 하고 있다⁸⁴⁾

극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보성회에서 공연한 극은

83) 「연극소식」, 『國民報』(1937년 11월 17일).

84) 「대학교 보성회 연극」, 『國民報』(1938년 1월 26일).

숙종대왕의 왕후 ‘민중전’의 행적을 다룬 것이다. 민중전을 주인공으로 하는 연극 공연은 「부인구제회 연극준비」(『국민보』, 1938년 2월 23일)나 「민중전」(『국민보』, 1938년 1월 26일 등)에서도 보이는데 이렇듯 반복적으로 공연된 것은 그만큼 관객의 반응을 얻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고전 각색극인 <심청전> 공연 소식도 종종 볼 수 있는데, 「봄놀이의 좋은 성적」(『국민보』, 1938년 5월 11일)에는 “심청전을 영어로 연극하고 그 외에 일반 한국풍속·성악의 순서들이었다더라.”라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앞선 밝히 바 있지만 영어 연극을 공연했다는 사실은 관객이 교포들만이 아닌 외국인들로 확산되었고, 이주지의 언어에 익숙해진 세대가 점점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심청전>은 내외국인에게 특별히 호응을 얻은 연극이었다. 그 예로 「심청전 연극을 재차 공연」(『국민보』, 1938년 6월 22일)을 들 수 있는데, 관객들의 앵콜 요청에 따른 재공연 소식이다

한인형제회 주최로 6월 30일 저녁에 호놀룰루 미술관에서 심청전 연극을 영어로 할 터인데, 이는 공중의 요구에 응하여 다시 연극하는 것이라는 것이 황혜수씨의 반포하는 말이다. 지난 5월 9일에 그 연극을 하였는데 그때 내외국인이 집에 넘치게 와서 참관하였고, 그들이 그것을 다시 보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 공중요구를 하와이 대학에서 후원하여, 이번에 그것을 다시 연극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심청전의 연기각본을 만들기는 권마구테트양이 한 것인데, 근세 연극에 적합하게 잘 만들었으며, 연극의 요인은 최제인양이 심청이 노릇을 하고 이애담군이 심봉사 노릇을 하고 안우라벗군이 왕 노릇



<그림 13> 「심청전해외진출」

을 하였다⁸⁵⁾

첫 번째 공연시 내외국인들이 반응이 좋았던 <심청전>은 관객의 요구에 따라 ‘하와이 대학’의 후원으로 재공연을 하게 되었다. 근대에 맞는 새로운 연극으로 각색한 작품이라고 한 것에서 현대적인 각색과 연출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연극 <심청전>의 인기는 국내에서 만든 활동사진 <심청전(深淸傳)>이 유입되어 상영된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해 1938년도 2월에 영화 <심청전(深淸傳)>이 소개되었고⁸⁶⁾ 이후 5월과 6월에 해당하는 시기에 위와 같은 연극 소식이 보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1930년대 중반에 <심청전>의 인기는 절정을 이루었다. 레코드화,⁸⁷⁾ 영화화,⁸⁸⁾ 만문화,⁸⁹⁾ 가극화⁹⁰⁾ 되었을 뿐 아니라 완창 공연도 간간히 행해졌는데⁹¹⁾ 성황리에 관객을 모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인기에 힘입어 문학성에 대해서도 논해졌으며⁹²⁾ 심지어 소설의 판매 부수 순위에서 「심청전」이 수위를 차지하기도 했다.⁹³⁾ 특히 영화의 인기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었고 1938년 11월 23일자 『조선일보』에서는 “각화 ‘베스트 10’

85) 「심청전 연극을 재차 공연」, 『國民報』, 1938년 6월 22일.

86) ‘기신양행 영화제작부에서 제작한 것인데, 예술가는 이명우씨요, 소리를 기록한 이는 그 계씨(季氏:아우) 이필우씨’(「심청전」, 『國民報』, 1938년 2월 2일).

87) 「레코드화한 심청전」, 『朝鮮日報』(1935년 1월 1일).

88) 「영화화된 심청전」, 『朝鮮日報』(1935년 1월 4일), 「심청전의 토기화」, 『朝鮮日報』(1935년 10월 30일), 「安夕影 감독으로 심청전을 영화화」, 『朝鮮日報』(1937년 7월 1일).

89) 「흥미 있는 만문화 심청전과 전대포」, 『朝鮮日報』(1936년 6월 1일).

90) 「가극 심청전 대공연」, 『朝鮮日報』(1936년 12월 12일).

91) 「금 28일 밤에는 심청전 전창 대회」, 『朝鮮日報』(1938년 4월 28일).

92) 「그 시대 사상과 심청전의 문학적 의의」, 『朝鮮日報』(1935년 1월 1일), 「심청전의 가치, 삼국사기에서 유형을 찾아」, 『朝鮮日報』(1935년 1월 1일).

93) 심청전 출판부수, 『朝鮮日報』(1935년 1월 4일), 「심청전의 영화화와 출판부수」, 『朝鮮日報』(1935년 1월 4일).

당선. 영화제 인기의 반영! 추첨투표 총수 5천여매. 무성 1석 아리랑전편
발성 1석 심청전”이라는 기사 내용이 게재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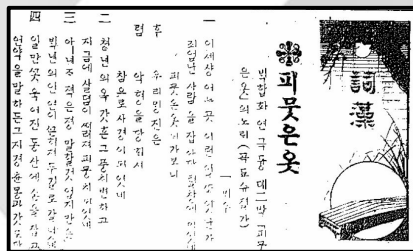
1937년 11월 23일자 『조선일보』, 「심청전해외진출」에는 “명춘(明春) 1월
(月)에 하와이에 수출(輸出). 조선영화(朝鮮映畵)로는 효사(嚆矢)”라는 제목
을 대서특필하고 있는데, 재미 한인 동포들에게도 전해졌으며, 몇 달 뒤
「‘심청’ 활동사진」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국민보』(1938년 2월 16일)에 실
렸는데, 다음의 내용을 보면 역시 인기를 많이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순 한국제, 순 한인 배우, 순 한인 예술가, 순 한국 배경, 순 한국어로
만든 한국 활동 사진 <심청>을 미처 못보신 분들과 보았더라도 또 한번
더 보시겠다는 분들의 청구가 답지하므로 이것을 다시 놀리겠습니다.⁹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겠으나 이렇듯 영화 「심청전」
의 인기가 연극 공연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고전 각색극은 1910년대에 이미 공연되기도 했었다. 이의 예로 1918년
2월 21일자 『신한민보』에는 <피뭇은웃>이라는 연극명이 보이는데 내용
상<춘향전(春香傳)>으로 추정된다.

빅합화연극등데 二막 「피뭇
은웃」의 놀리(곡도슈절가) 一
이세상 어느 곳 이런 일도 있
난가 /죄업난 사람을 잡아다
털창에 너엇네/피뭇은웃니가
보니(후렴)악형을당히셔 참으
로사경이되엇네/ 二 청년의 옥
갖흔 풍치변하고/三 야너즈



<그림 14> 「피뭇은웃」

94) 「‘심청’ 활동사진, 『國民報』(1938년 2월 16일).

적은정 말할것 업지만은/백년의인연이 쓴혀져 두길로 갈렷네 四 일막곳
 옥어진 동산에 손을 잡고 언약을 말하든지그지경춘몽과갓도다.⁹⁵⁾

실제로 신문에 드러난 바를 보면, 당시 한인들에게 익숙한 소재의 극
 이라 반응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⁹⁶⁾ <춘향전>은 이후 1940년대에 호놀
 룰루지방 부인구제회에서 각색되어 공연되기도 했다.⁹⁷⁾ 특히 이 연극에
 서는 한국 혼례식을 보여주는 장면이 주목받았는데, 해방 직전인 이 시
 기엔 세대교체가 이루어져 조국의 전통 혼례식 자체가 하나의 볼거리로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⁹⁸⁾

마지막으로 재미 극계에 대해 더 부연자면, 1930년대 말부터는 연극 소
 식보다 “활동사진”, “진경사진” 등에 대한 소식이 더 눈에 띈다는 점이다.
 ‘릴리하 활동사진관’, ‘금성연극장’ 등 활동사진 전용관도 생긴다.⁹⁹⁾ 이는
 국내와 마찬가지로 영화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졌음을 의미한다. 그 내용
 을 보면 전의가 감도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함인지 주로 기록영화 성격의
 활동사진들이었다.¹⁰⁰⁾

95) <春香傳>, 『新韓民報』(1918년 2월 21일)

96) 「부인구제회 통상회록」, 『國民報』(1943년 11월 24일).

97) 「부인구제회 통상회록」, 『國民報』(1943년 11월 24일)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기사 내
 용도 볼 수 있다. “11월 21일 오후 2시 반에 호놀룰루지방 부인구제회(婦人救濟
 會)를 국민총회(國民總會)에서 개(開)하고, 처리한 사건은 호놀룰루지방회 대표는
 김보배씨로 선정한 일. 명년 3월경을 기회삼아 연극을 준비하되 춘향전(春香傳)
 을 모범적으 하되, 연극 주무원은 김보배씨로 선정한 일” 연극 공연이 총회의
 결정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을만큼 주요 행사였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98) 한국 혼례극을 보여주는 ‘특고」(『國民報』, 1945년 1월 24일)에서는“금년 3·1절
 에 형제회(兄弟會) 주최로 3월 4일 육해군 초대 연극순서에 한국혼례극이 있는
 바, 그 초례상(醮禮床)을 꾸리는 법칙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본인에게 알려 주
 시든지 국민보사(國民報)로 통지하시옵소서”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다.

99) “본 회사에 금성 연극장을 맡아 가지고 활동사진 「토키」만을 놀립니다.”(「금성
 연극장」, 『國民報』, 1938년 9월 14일)

100) “이번에는 다만 소개하는 것이요. 이 다음에는 전투의 활극이 계속하여 오겠
 습니다. 요전 루스벨트 연극장에서 보인 중국전쟁 사진을 공중의 요구에 응하

2. 동북아시아 이주민 연극의 내용

1) 민족의식 고취와 사회 계몽극

동북아시아 이주민 지역에 비하여 재미 한인의 보도 자료에는 공연 내용이 구체적으로 소개되는가 하면 희곡 작품이 실리거나 소개되는 일이 잦은 편이다. 그러나 동북아시아 이주민의 공연 자료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단편적인 소개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내용 파악이 쉽지 않다. 관계 자료의 희귀성 때문에 자료를 풍부하게 살피지 못한 채 분석한 한계를 지닌다. 차후 자료를 입수할 경우, 이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는 사실을 첨언해 두는 바이다. 몇 편 되지 않는 작품이지만 그 내용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먼저 앞서 살펴 본 안창호의 문건류인 「제10회 원동대회 희락회석상에서」(1924년 2월 8일)에 드러난 연극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問題 「國交斷絶」內容 某地에 一子一女와 一婢一僕을 두고 夫婦의 一家庭이 있었는데 男子는 所謂 藝術家(不徹底無價值한)이요, 女子는 相當한 理想家이라. 其男子가 日常 自己 아내의 合理的 忠告를 싫어하여 一日은 서로 다투다가 男子가 먼저 地面에 一線을 劃하고 서로 國交를 斷絶하고 左右房에 各居하여 서로 通涉지 아니하는데 男子의 料理價를 받으려는 料理店 下人에 對하여는 서로 안 물겠다고 저편에 가서 받으라 하고 女子가 寢具를 要求함에 對하여는 男子便에서 내어주지 아니하는 등의 活劇이 있다가 終場에는 一 女醫가 와서 女子로 하여금 得病하여 今時 죽게 된 것같이 하고 男子를 달래어 女子에게 와서 自服하게 하여 다시 서로

여 다시 늘림”(『릴리하 활동사진관』 『國民報』, 1938년 1월 26일), “전쟁에 파상되는 중국의 진정을 보이는 활동사진”(『중일전쟁의 진경 사진』, 『國民報』, 1938년 3월 9일), “이 사진이 중국 전쟁사진 보던 중에 제일 장쾌하고 제일 실정이라 합니다.”(『대아장 혈전의 장편 사진』, 『國民報』, 1938년 7월 20일)

和親케 하는 것인데 於間에 그네의 子女는 父母의 前에서 嬌態를 부리는 것과 그의 男僕과 女婢는 능청스럽게 酬酌하는 것이 實로 可觀이다. 登場人物 男子 金春植(김춘식) = 林孝貞(임효정) 女子 李英子(이영자) = 裴仁守(배인수) 令息 金孝誠(김효성) = 金鍾植(김중식) 令孀 金愛姬(김애희) = 孫聖實(손성실) 男僕 못난이 = 崔英淑(최영숙) 女婢 예쁜이 = 朴敬植(박경식) 料理店 下人 王三(왕삼) = 金鍾錫(김종석) 女醫 安惠敬(안혜경) 金鳳姬(김봉희) 慕은 一家庭¹⁰¹⁾

연극 제목은 <국교단절(國交斷絶)>인데 한 가정을 배경으로 한 단막극이다. 성격이 서로 다른 부부의 갈등과 그 화해를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서 남편은 “예술가(불철저무가치)”요 아내는 “이상가”인데 남편은 합리적인 아내의 충고를 싫어해 서로 별거를 하게 된다. 서로 자존심을 내세워 팽팽히 맞서다 중국에는 아내의 거짓 연극으로 화해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일종의 가정극으로 일상의 문제들을 가볍게 다룬 것처럼 보이나, 원동대회라는 거국적인 행사에서 공연되는 연극인데다, <국교단절>이라는 제목에서 암시되는 바, 정치적인 이해 다툼을 상징화하여 극화한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중한호조사(中韓互助社)주최 유예대회(遊藝大會)의 경과」(『독립신문』, 1923년 3월 7일)에서는 항일의식을 드러내는 극이 공연되었음을 밝히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

本日 遊藝의 主題로 된 安重根傳의 演劇을 出演할 時에 李完用等이 賣國할 時에 伊籐에게 對하여 너머 卑屈한 態度를 보인 것이 事實에 違反이라 하여 觀覽하던 同胞中에서 此에 對한 攻撃을 與하는 이가 잇서 會席이 一時 騷亂하여 것슴으로 매우 자미업게 되어 中國人에게 대단한 不好感을

101) 안창호, 「제10회 원동대회 희락회석상에서」(1924년 2월 8일, 독립기념관 독립운동가 자료, 자료번호 1-H00608-000).

買하였더라¹⁰²⁾

이 연극은 ‘안중근전’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완용 등의 매국 행위가 장면화되었는데, 이완용이 이등박문에게 너무 비굴한 모습을 보이도록 연기했다고 객석에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삼일절이나 그 전후로 공연되는 연극은 반일을 주제로 하여 민족 의식을 고취하고 독립 정신을 배가하려는 연극이 많았다. 상해 중심의 『독립신문』과 『한민』에서 그 예들을 볼 수 있는데, 「삼일절경축회문」(『독립신문』(1923년 3월 1일), 「남경에 삼일절」(『독립신문』, 1925년 3월 23일), 「유홍」(『한민』, 1938년 3월 1일) 등에서 단편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三月一日은 五年前 우리가 獨立을 宣言한 날임으로 우리가 이날은 永久히 紀念할 國慶日로 定하여 年年 各地에서 이날을 慶祝하여오는바 今年 이날에도 例年과 如히 各地에서 盛大한 祝賀式을 舉行할 것은 勿論이 어니와(…)我女子界主催의 國慶祝賀演藝會 南京 韓人基督女子青年會에서 上海 各女子界의 後援을 得하여 當日 下午七時부터 當地 慕爾堂에서 演藝會를 開하고 年前 國內에서 愛國婦人會가 獨立運動을 爲하여 活動하다가 敵에게 잡혀 困辱當하던 光景으로써 脚本을 만드러 演劇한다는바 當日 入場料의 收入은 當日의 經費를 除하고는 疾苦에 陷하여 依支할 데 업는 불상한 女子의 救護費에 充用한다더라¹⁰³⁾

우리 東明學院에서 林昌模 吳裕政 等 諸氏의 出演에 係한 우리의 獨立 運動을 背景으로 한 <百年의 功>이란 演劇을 가장 意義 깊고 滋味있게 興行하고 茶菓를 난흔 後 同十時頃에 散會하였더라(南京)¹⁰⁴⁾

102) 「中韓互助社 主催 遊藝大會의 經過」, 『獨立新聞』(1923년 3월 7일)

103) 「三一節慶祝彙聞」, 『獨立新聞』(1923년 3월 1일)

104) 「南京에 三一節」(『독립신문』, 1925년 3월 23일).

왕형 송민수 양씨와 오광심 여사를 주각으로 한 『삼일혼』이란 연극이 많은 환영을 받았는데 그 내용으로 말하면 삼일운동 당시에 일어난 한가지 사실을 발단으로 하여 그 후 이십년간 한 사람은 군사운동에 전력하고 한 사람은 민중운동에 전력하여 나중에는 그 두사람의 힘을 한하여 왜적을 물리치는 것으로 끝을 막았다. 이 유흥에서 끝으로 관중의 흥미를 일층 돋은 것은 모 선생의 시조와 이복원 씨의 춘향가와 이달 씨의 육자백이었다.¹⁰⁵⁾

첫 번째 제시된 기사 내용을 보면 “한인기독교녀자청년회”의 연극 공연에서는 애국부인회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적에게 잡혀 곤욕당한다는 내용이며, 두 번째 남경의 <백년의 공>은 ‘동명학원(東明學院)’에서 임창모 오유정 등이 출연하였고, 내용 역시 독립운동을 다루고 있고 <삼일혼>이라는 제목의 연극은 “군사운동”과 “민중운동”에 20년간 전력했던 두 인물인 “왜적”, 즉 일본을 물리친다는 내용이다 특히 <삼일혼>은 말미에서 시조를 읊고, 춘향가와 육자백기를 불렀다는 것이 주목된다. 내용에서 살펴 본 바, 상해 중심의 교포 사회에서도 삼일절은 가장 기념적인 날이며 이 시기에 공연된 연극은 애국심과 반일의식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 소련에서 발간된 교포 신문인 『선봉』의 보도에는 민족의식을 부추기는 공연 소식보다는 사회 일반에 대한 계몽적인 연극 소식이 게재되는 경우가 많았다. 구체적인 예로 먼저 「매혼문제로 연극흥행」(1926년 4월 11일)과 「붉은빛이라는 연극으로 주민을 배워준다」(1926년 3월 13일)를 들 수 있다.

쓰미쓰구역 남보호리존에 여자대표회원은 二一명으로 수년동안에 문맹 퇴치를 힘쓴결과로 각오한동무들은 각단체사업에 열성으로 참가하며 지

105) 「遊興」, 『韓民』(1938년 3월 1일)

난녀자테이에 연극을 흥행해야 과목은 매혼이라는 뜻으로 여자들만 극사로 하였는데 일반군중은 그 활발한 동작을 칭찬하여 남자보다 더 잘한다고¹⁰⁶⁾

치머우면 시로우에 공청회는 일즉 로비아 공청회와 련합진행하든바 언어의 불통으로 지금분립하였는데 정회원이 10명이고 후보 6명으로 아직 정식승인은 없으나 각종사업에 적극진행하며 치머우당야제이까에서 개최하는 순회강습에 내동무를 보내어 청강케하고 각계몽소에 책임덕으로 가르쳐주며 문화사상과 혁명정신을 많이 선전하든바 지난레닌동무별세한데 그 주기념식에 농촌에 붉은 빛이라는 연극을 흥행해야 일반주민에게 많은 각오를 주었음으로 모다 찬성한다고¹⁰⁷⁾

첫 번째 기사문은 ‘매혼’ 문제를 다룬 여성 연극의 소식이며, 두 번째 기사문은 당원들로 구성된 연극 <농촌에 붉은 빛>에 대한 보도인데, 일반 주민에게 문화사상과 혁명정신을 고취하려는 계몽극임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3월 27일에 연극·음악회」(『선봉』, 1930년 3월 21일)라는 기사도 주목되는데 소련에 거주한 노동자들이 주최가 되었다는 점이 특기 사항이다. 그들은 농촌 콜호즈를 위한 자선공연을 개최하였고 “조선연극, 중국극극” 등을 선보였다고 한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동북아시아 연극의 경우는 중국과 소련 이주민 연극으로 대별되는데, 독립운동의 거점지였던 상해 중심의 이주민 사회에서는 재미 한인 사회와 마찬가지로 삼일절 기념극을 중심으로 한 독립의식 고취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식민지하 조국의 비극적 상황에서 이러한 연극은 관객으로 하여금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을 강화하고, 적을 응징하는 결말 구조에서 민족의 울분을 터뜨리는 대리체험을 경험케 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해와 달리 연해주 중심의 이주민 사회에서는

106) 「매혼문제로 연극 흥행」, 『先鋒』(1926년 4월 11일).

107) 「붉은 빛이라는 연극으로 주민을 배워준다」, 『先鋒』(1926년 3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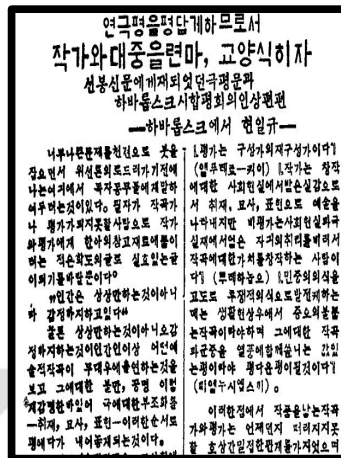
주로 사회 계몽적인 내용의 극이 대부분이며 민족의식을 드러내는 공연 보도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예문이 쓰여진 시기는 강제 이주 전이고, 희곡에서는 민족 정신을 고취하는 작품들이 많이 쓰여진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 소식이 보도되지 않은 것은 신문이라는 매체적 특성으로 인해 소련 체제와 부합하는 공연만 게재 된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¹⁰⁸⁾

2) 사회주의적 연극 비평

원동에서 발간된 『선봉』에 주목되는 기사가 있는데, 바로 「연극평을 평답게 함으로써 작가와 대중을 연마, 교양시키자」(1930년 5월 30일)라는 사회주의 연극 비평이다. 이것은 드물게 보이는 연극 비평으로서 특기할만한 내용을 지니고 있다. 더불어 당대 소련 이주민 사회에서 공연되었던 연극의 일부를 살펴 볼 수 있게 하여 자료로서 주목된다.

필자는 현일규로서 『선봉』에 게재되었던 연극평과 “하바롭스크시합평회의 인상편”을 보고 쓴 글이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우선 필자는 일반적으로 비평가는 무대 위에서 연출된 극을 보면서 그에 대한 “취재, 묘사, 표현”의 순서로 평하게 된다고 쓰고 있다.

그는 먼저 연극이 사회에 어떠한 역할을 하며, 비평가는 그것을 왜 평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필자는 연극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시



<그림 15> 「연극평을 평답게 함으로써 작가와 대중을 연마, 교양시키자」

108) 보도된 자료만을 텍스트로 삼은 관계로 강제 이주 전 시기의 공연물이 주가 되었음을 밝힌다.

대를 반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시대의 연극은 그 “시대적 환경이 낳아준 실감”을 기초로 하여 창조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감”에서 얻은 연극은 자기 계급을 옹호하는 성향을 지니며, “선동선전의 무기가되는것이다”라 하면서, 그 작품의 가치여하는 비평가의 엄정한 비판에 의해서만 판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비평은 이와같은 단순한 이유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부연한다.

그렇지 않다. 극에대한비평은 지식을서로교환하며 작가와군중사이를 서로갓잡게만들며 작곡에대한가치여하를판정함으로 작가의정세한런마와군중의예술상교양을주며 작곡을소개하면서 작가와군중의오해를 교정하는것으로서 예술과의우리생활관계를 밀접하게만드는 평다운평의 의무를다할것이다.¹⁰⁹⁾

위 인용문을 보면, 비평의 목적은 지식을 교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작가와 관객 사이를 서로 친밀하게 만들며, 작품에 대한 가치 여하를 판정함으로 작가를 연마케 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비평은 군중에게 “예술상교양을주며”, 작품을 소개하면서 작가와 군중의 오해를 교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술과 생활을 밀접하게 만드는 것은 비평가의 의무로서 평다운 평을 써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또한 비평에 관한 문인들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면서 비평가의 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이점에서 많은문인들의 평에대한의의를말한것을인용하여보자. 『평가
는 구성가의재구성가이다』(엘푸테로 커이) 『작가는 창작에대한 사회현실

109) 「연극평을 평답게 함으로써 작가와 대중을 연마, 교양시키자」, 『先鋒』(1930년 5월 30일).

에서받은실감으로서 취재, 묘사, 표현으로 예술을 나타내지만 비평가는 사회현실과극실제에서얻은 자기의취리를비려서작곡에대한가치를창작하는 사람이다』(루데하놉오) 『민중의의식을고도로 투쟁적의식으로발전케하는 작곡이라야하며 그에대한 작곡과군중을 열풍에함께쫓는 값있는평이라야 평다운평이될것이다』(엘누시엥스까). 이러한점에서 작품을남는작곡가와평가는 언제든지 떨어지지못할 호상간밀접한관계를가지었으며 평가가 재구성가인것만큼 작가이상의더중한책임을가지었다.¹¹⁰⁾

이렇듯 연극평은 왜 하는가, 비평은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 비평가는 어떤 의무를 지니는가를 지적한 후에 이어서 당시 신문에 게재된 연극평들을 비판하고 있는데, 단편적이지만 당시 공연되었던 연극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제시된 몇 개의 연극 제목과 단편적인 내용들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농촌에좋은예술을다구>는 소왕텅사범학교 순국단(농촌련락반)이 주최한 연극이다. 다음의 내용에서 농노 시대를 배경으로 지주와 소작인의 대립과 혁명을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련락대의연극은 새예술에모범을주었다할수있다 그러나두어가지모순이있다 첫째 1~2막에서는 농노제도의시대를그리어내고3막에서췌췌로 불은군대를그리어서 작곡이빠만남었다고 원동고려인극예위대한자리를 주어야할것인데 국사의각고가 부자연, 군중을어하는점이보이었다고』 예제를 『칼』이라고한데로붙여시작하여 농부의아들이 자기아버지죽었을 때의 지주의아들에게대한행동이 작가가 실감의현실을도대하지못하고 상징으로 붓을잡었던취재가보인다. 또한시대선택에서 작가의정신이 혼미경에빠지었던감이있으니 혁명기에서 지주의박멸이 승리에도라갔다상징하면...실감...서 혁명참모부에 무산자적인물이없고 그외동맹자농민으로 채

110) 「연극평을 평답게 함으로써 작가와 대중을 연마, 교양시키자」, 『先鋒』(1930년 5월 30일).

위있었음을역역히 보게되는것이다.¹¹¹⁾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번안작 <떠나가는배>와 <뚫는해마증가며>라는 작품을 평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공연 내용은 소개되지 않고 있다

이제번안으로출품되었던 『떠나가는배』를보자: 각색자의 정신이 어떤 예술을위한예술의미의창조가아니라는것은 평자들의입을비러서론파되었다. 그러나 그중몇동무의과중평가와과소평가에대하여서 필자는말하지아니할수없다(...) 그런극은우리로력자의부대에내어놓지말아야되겠다고』동무는역설하였다. 또말하기를 『하필우리생활에 많은취재를두고 왜외국을 배경으로하였는가? 이런일이다시없어야하겠다』라고 열론을하였다(...) 과중평가는 작가나각색자에게무엇을줄수있었으며 군중에게무엇을주었겠는가하나우숨에불이고말았다(...) 이제또 『뚫는해마증가며』라는각본에대하여서는 평자들의평이대체로신중하였으며 과소평가하는동무들은국사에게 치유했음으로 표정상부족을공격하는데는 유일한무기로 사용하였던것이며 결□자의힘있는론의로끝을막았다.¹¹²⁾

위의 비평을 보건대, <떠나가는배>는 외국을 배경으로 하여 현실적인 취재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뚫는해마증가며>는 표정상의 부족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상 소략하게나마 상해나 연해주 등에 이주했던 교포들의 공연 내용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상해의 경우 민족의식 함양을 위한 연극이 주를 이루며, 삼일절과 같은 대대적인 행사에서 연극이 종종 공연되었다. 그러나 연해주 지역의 경우, 연극 비평을 통해서 드러나듯이 사회주의 사상을 띤 민중 계도의 공리성이 작품의 주요 기반이 되기도 했다.

111) 위의 글.

112) 위의 글.

IV. 민족 운동, 사회 교육으로서의 연극

본고에서는 일제강점기 재미 한인과 동북아시아 이주민의 연극 활동을 고찰하였다. 연극 활동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연극 주최 측이 누구이며, 공연 목적이 무엇인가를 주시하였다. 다음으로는 공연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서 그 성격이 어떠한지를 고찰하였다.

당시 해외 교민의 연극 공연은 크고 작은 행사에서 일반화되어 행해졌는데 대개 부인회와 청년회, 종교 단체 공청회 등에서 활발한 연극 활동을 보이고 있다. 재미 한인의 경우는 특히나 국민회를 중심으로 한 거국적인 행사에서 공연을 자주 개최했는데,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으로 일반화되어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삼일절과 같은 사회적인 행사에서 민족의식 함양을 위한 공연은 물론이고 농촌 계몽을 위한 순회단 연극도 올려졌다. 또한 두 지역 모두 구제를 위한 의연금 마련이라는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서도 연극이 필요했고 교민들의 친목 도모의 장에서 빠질 수 없는 오락거리이기도 했다.

망국이나 실항이라는 부정적인 현실에서 민족의 이름 아래 단결해야 한다는 과제를 지니고 있었던 교포들에게 연극을 보는 행위는 단순히 연극을 보는 것만이 아니었다. 다시 말해 한인들 자체의 단합의 장을 마련하며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케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때의 연극은 관객에게서 내적 체험을 환기시키고 정서를 진작시킴으로써 당대 한인 사회를 통합시키는 기능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인국민회’와 같은 단체가 연극을 정책적으로 장려한 것도 이러한 소기의 효과를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낯선 땅에서 각각의 힘겨운 일상을 보내다가 연극을 보는 순간은 동일한 체험으로 연결되고 결속력이 강한 순수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그들의 연극 관람은 일종의 삶의 불안을 극복하고자 하는 집단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문화의 역정을 시작하는 원시인은 집단 속에서만 행동하고, 생각하며 느낀다. 그러므로 원시인의 모든 체험은 그 종족의 '총체적 체험'이다 (...)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물론 집단과정이다. 그러나 그 집단과정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아마도 그것은 의심할 바 없이 원시인들이 '삶의 불안을 극복하고자하는 시도'로 묘사될 것이다.¹¹³⁾

인용문에서 보인 원시인의 집단 과정과 해외 이주민의 상황이 다르다 할지라도 일제강점기의 이주민들의 내면도 이와 유사하다고 여겨진다. 망국과 실항으로 타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연극 체험은 바로 원시인의 그것과 같이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집단 과정의 일면을 띤다. 그러므로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연극을 보면서도, 관람비 지불에 의해 독립운동을 위한 '혈성금'을 내는 것도, 이를 통해 어려운 동포들을 구제하는 것도 그들에게 모두 의미있는 행위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연극 제반 활동에 주최측이나 관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라 여겨진다.

재미 한인 사회의 대표적인 신문인 『신한민보』에 게재된 동해수부의 「연극의희문이풍속기량과정신고취에필요함」이라는 글은 당대 미주 한인들의 연극인식을 잘 표현한 평론으로 서구극과 우리나라 전통극에 대한 인식, 연극의 목적 등이 드러나 있다. 여기에서는 희곡과 연극의 발달이 문명 발달의 기초라 보았으며, 연극 활용을 통한 교육은 문학 교육 뿐만 아니라 '보통교육'에서 보다 효과적이라 보고 있다. 또한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연극을 통하여 사회의 풍속 개량과 조국애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여 계몽주의적 연극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것은 당시 국내의 연극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마디로 이러한 연극 이념은, 연극에서 예술적 가치며 인생의 의의 혹은 연극적 감동 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리적, 공리적 사상을 중시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재미 한인의 연극 내용을 살펴 보면, 먼저 사회적인 행사 중에 공연된

113) 이남복, 『연극사회학』, 현대미학사, 1996, 82면

연극은 주로 민족의식과 애국정신을 드높이려는, 소위 ‘애국극’이었다. 이것은 동북아시아 상해 중심의 이주민에게도 적용된다. 조국을 빼앗긴 상황에서 낯선 이국땅에 자리한 이들은 이중의 박탈감 속에 처해 있는 형편이었고, 그래서 애국심을 유발시키는 극이 공연되고 또 관객들에게도 환영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3·1절 행사에서는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연극 공연이 대대적으로 행해졌는데 억압적인 상황에 처해 있던 국내와 달리 여지가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목되는 몇 가지 사항을 짚어 보면 재미 한인 사회의 경우, 극의 주제적인 측면을 보면 전기에는 민족주의 애국주의 중심이었던 것이 일제 말기로 가면서 다양한 테마로 확장되며, 하나의 극 안에서도 다양한 소재를 다루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또 하나 연해주를 중심으로 발간되었던 『선봉』의 연극 비평인 「연극평을 평답게 함으로써 작가와 대중을 연마, 교양시키자」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주의 사상을 띤 민중 계도의 공리성이 작품의 한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일제 강점기 국내나 일본에서 우리 민족들의 연극 활동은 이미 여러 각도로 연구된 바 있다. 그러나 그 외 재외 한인들의 연극 활동에 대한 연구는 최근 들어 주목받고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이 연구 또한 그 한 시도로서 해외 한인들의 연극 활동상을 조명해 본 것이다. 특히 본고에서 텍스트로 삼은 것은 당대 신문으로 희곡 작품이 아닌 당시 공연물에 대한 고찰이었다. 보도 자료들은 해외 교포의 연극 활동에 대한 논의와 활동들을 단편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당시의 정황을 알 수 있는 유효한 지면이다. 그야말로 제시된 기사문을 중심으로 살펴 본 것이기에 보도되지 않은 활동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간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하나의 사적 자료로서 당대의 해외 교포의 연극 활동의 실제들을 부분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었다고 하겠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재미 한인과 동북아시아 이주민을 중심으로 한 해외 연극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고찰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1. 공연 주체와 그 활동 양상 2. 공연 내용 3. 사회적 효과 등이다. 살펴 본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연 주체와 그 활동 양상에 대해 살펴 보았다. 먼저 재미 한인의 연극 활동을 살펴 보면, 재미 한인 사회에서 연극의 공연은 크고 작은 행사에서 일반화되어 행해졌다. 대개 부인회와 청년회, 종교 단체 등에서 활발한 연극 활동을 보이는데, 구체를 위한 의연금 마련이라는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서도 연극을 자주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민들의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친목 도모의 수단으로 공연은 빠질 수 없는 행사이기도 했다.

다음으로 동북아시아 이주민의 공연 활동을 요약해 보면, 특히 상해 중심의 교포 사회의 경우 재미 한인의 공연 활동과 유사한 측면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금 마련을 위한 공연이 자주 올려졌고, 3·1절과 같은 대대적인 행사에서 연극을 통해 이주민들이 단합의 장을 마련했다. 연극 주최측도 청년회나 학생회, 부인회, 공청회 등이 주도가 되고 있었다. 그런데 특기할 사항은 연해주의 경우 연극단 조직이 활발하였으며, 주로 농촌 계몽을 위한 연극 공연이었다는 점, 방학을 이용하여 순회 공연 등을 기획했었다는 점 등인데 여타 지역 한인 사회와 대조되는 활동상이기도 하다.

둘째, 공연 내용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먼저 극의 내용적 고찰에서는 재미 한인 연극의 경우 (1) 풍속개량과 정신고취의 연극, (2) 역사극과 고전 각색극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1)의 경우는 주로 일제강점기 초기의 이민 1세대의 작품으로 계몽적인 연극관이 기반을 이루고 있다.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실제 공연된 연극 내용들은 이에 부합하여 민족의식 고취가

주를 이루었으며, 간혹 가정극이나 사회 일반 문제에 대한 계몽극도 공연되었다. (2)의 경우, 주로 1930 년대의 현상으로 재미 한인의 연극계에서는 고전 각색극이나 역사극 공연이 인기를 얻기도 했다. 30 년대는 국내에서도 이러한 붐이 일던 시기인데 해외인 이곳까지 그 영향력이 전해진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동북아시아 이주민의 연극은 (1) 민족의식 고취와 사회 계몽극 (2) 사회주의적 연극 비평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1)에서 상해 중심의 공연은 애국정신을 함양시키는 극이 대부분이라 미주에 비해서 주제가 다양치 못함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연해주 중심의 연극 공연은 대부분 사회 일반 문제에 대한 계몽이나 사상성을 강화시키려는 내용이었다. (2)는 『선봉』에 게재된 「연극평을 평답게 함으로써 작가와 대중을 연마, 교양시키자」라는 기사를 중심으로 살핀 것인데, 이것은 드물게 보이는 연극 비평으로서 사회주의 비평의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당대 소련 이주민 사회에서 공연되었던 연극 내용의 일부를 살필 수 있어서 주목된다.

셋째, ‘민족운동, 사회교육으로서의 연극’이라는 측면에서 재미 한인과 동북아시아 이주민의 연극을 고찰해 보았다. 조국이 일제강점하에 놓여 있었던 현실에서 해외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교포들에게 연극 공연은 민족의식과 사회 계몽을 진작시키는 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

주제어 : 일제강점기, 한인연극활동, 미국과 동북아시아, 이주민, 계몽극

참고문헌

1. 논문 및 저서

강진구, 「제국을 향한 모델 마이너리티(model minority)의 자기 고백」, 『현대문학의

- 연구』 제29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06, 171~201면
- 김원모, 「하와이 한국 이민과 민족운동」, 『미국사연구』 제8집, 한국미국사학회, 1998, 187~219면
- 김재석, 「1920~1930년대 사회극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김 현, 『文學社會學』, 민음사, 1991.
- 민병욱, 『희곡문학론』, 玄凡社, 1989.
- 민병욱, 『일제강점기 제일 한국인의 연극 활동』, 연극과 인간, 2000.
- 민병욱, 『현대희곡론』, 삼영사, 1991.
- 박명진,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에 나타난 민족 정체성- 희곡텍스트를 중심으로」, 『인문연구』 제48집,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5, 39~67면
- 박명진, 「고려인 희곡 문학의 정체성과 역사성 -연성용 희곡을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제19집, 2004, 171~217면
- 양승국, 「1920~30년대 연극 활동론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2.
- 양승국, 『한국근대연극비평사 연구』, 태학사, 1996.
- 유민영, 『한국근대연극사』, 동문선, 1996.
- 윤금선, 「일제강점기 신문에 나타난 국문론」, 『한국언어문화』 제24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3, 293~330면
- _____, 「19세기 재미 한인의 국어교육」, 『국어교육』 113호, 한국어교육학회, 2004, 197~203면
- _____, 「1920-40년대 배우양성론과 그 활동 양상」, 『한국언어문화』 제30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6, 175~209면
- 이강렬, 『한국사회주의연극 활동사』, 東文選, 1992.
- 이남복, 『연극사회학』, 현대미학사, 1996.
- 이만열, 「하와이 이민과 한국교회」,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16집,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2, 35~48면
- 이명재 외, 『억압과 망각, 그리고 디아스포라』, 한국문화사, 2004.
- 이홍우, 「1910년대 재미 '신한민보' 소재 희곡 연구」, 『한민족어문학』 제5집, 한민족어문학회, 2004, 1~64면.
- 정봉석, 『일제강점기 선전극 연구』, 월인, 1998.
- 조규익, 「『移民문학』은 '우리 문학'이다: 재미한인 이민문학의 현황과 의미」, 『OK time』 제107호, 해외교포문제연구소, 2002, 16~19면.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4』, 지식산업사, 2005.

蔡 薰, 『在滿韓國文學研究』, 깊은샘, 1990.
 한국학문헌연구소, 『公立新報·新韓民報』, 문예공론사, 1981.
 Oscar G. Brockett, 김윤철 역 『연극개론』, 한신문화사, 1990.

2. 인용자료

[문건류]

「崔能益이 安昌浩에게 보낸 서신」(다뉴바 ; 연도미상), 독립운동가자료, 발신자 최능익 수신자 安昌浩(서기력 二月 念日), 독립기념관
 「在浦潮朝鮮人演藝會停止ノ件」(安重根演劇·安昌浩演說)(憲機제378호(1911년 2월 17일), 『日本外交史料館資料』.
 안창호, 「제10회 원동대회 희락회석상에서」(1924년 2월 8일), 독립기념관 독립운동가 자료, 자료번호 1-H00608-000.

[신문류]

『國民報』

「3·1절애국연극」, 『國民報』(1937년 1월 20 일)
 「대결작대연극」, 『國民報』(1937년 2월 17 일)
 「부인구제회 연극원」, 『國民報』(1937년 3월 3 일)
 「3·1절 부인들의 연극을 보고 얻은 감상」, 『國民報』(1937년 3월 10 일)
 「학비모집 연극회」, 『國民報』(1937년 4월 14 일)
 「한인의 연극 밤 순서」, 『國民報』(1937년 5월 5 일)
 「안숙자 양은 음악연극」, 『國民報』(1937년 6월 3 일)
 「연극광고」, 『國民報』(1937년 11월 10 일)
 「연극소식」, 『國民報』(1937년 11월 17 일)
 「대학교 보성회 연극」, 『國民報』(1938년 1월 26 일)
 「민정집회관」, 『國民報』(1938년 1월 26 일)
 「릴리하 활동사진관」, 『國民報』(1938년 1월 26 일)
 「심청전」, 『國民報』(1938년 2월 2 일)
 「부인구제회 연극 준비」, 『國民報』(1938년 2월 9 일)
 「부인구제회 연극」, 『國民報』(1938년 2월 9 일)

「‘심청’ 활동사진, 『國民報』(1938년 2월 16일)
「부인구제회 연극후문, 『國民報』(1938년 3월 2일)
「중일전쟁의 진경 사진, 『國民報』(1938년 3월 9일)
「봄놀이의 좋은 성적, 『國民報』(1938년 5월 11일)
「찬성원 특대권, 『國民報』(1938년 5월 11일)
「심청전 연극을 재차 공연, 『國民報』(1938년 6월 22일)
「대아장 혈전의 장편 사진, 『國民報』(1938년 7월 20일)
「적십자회연극, 『國民報』(1942년 5월 20일)
「부인구제회 통상회록, 『國民報』(1943년 11월 24일)
「군인 위한 조선연극, 『國民報』(1945년 1월 17일)
「형제구락부 연극, 『國民報』(1945년 1월 17일)
「특고, 『國民報』(1945년 1월 24일)

『新韓民報』

「음풍이일성, 『新韓民報』(1909년 4월 2일)
「연극준비, 『新韓民報』(1914년 2월 26일)
「春香傳, 『新韓民報』(1918년 2월 21일)
「상향동포의 망년회 연극과 기도회로 송구영신, 『新韓民報』(1924년 1월 3일)
「가주에 와서 얻은 감상, 『新韓民報』(1929년 4월 4일)
「외하아와부인회연극, 『新韓民報』(1938년 낱짜 미상)
「카우아이 소식, 『新韓民報』(1938년 5월 11일)

『태평양주보』, 『韓民』, 『先鋒』

「선봉을 위하여 연극, 『先鋒』(1924년 10월 28일)
「연극 놀이아학을 돕다, 『先鋒』(1926년 1월 16일)
「학비곤란으로 연극, 『先鋒』(1926년 1월 21일)
「붉은빛이라는 연극으로 주민을 배워준다, 『先鋒』(1926년 3월 13일)
「매혼문제로 연극홍행, 『先鋒』(1926년 4월 11일)
「연극으로수입된륙십원을학생공리사에, 『先鋒』(1926년 6월 3일)
「고려활동사진 배우강습소 개학식, 『先鋒』(1927년 7년 31일)
「리파크연극단의 농촌순회, 『先鋒』(1930년 1월 8일)
「3월 27일에 연극·음악회, 『先鋒』(1930년 3월 21일)

「연극평을 평답게 함으로써 작가와 대중을 연마, 교양시키자」 『先鋒』(1930년 5월 30일)

「녀자대표연극단의 출연」, 『先鋒』(1931년 5월 31일)

「三·一절연극」, 『태평양주보』(1938년 날짜 미상)

「대연극순서」, 『태평양주보』(1938년 날짜 미상)

「기독교원티연극」, 『태평양주보』(1939년 2월 25일)

「遊興」, 『韓民』(1938년 3월 1일)

『獨立新聞』

「仁誠學校生徒」, 『獨立新聞』(1920년 1월 10일)

「三月十五日의 俄國革命紀念日」, 『獨立新聞』(1920년 3월 18일)

「仁誠學校狀況」, 『獨立新聞』(1920년 3월 25일)

「我愛國婦人會의 歌舞劇大演奏會」, 『獨立新聞』(1922년 3월 1일)

「女夏期演劇會」, 『獨立新聞』(1922년 8월 12일)

「仁成學校演藝會」, 『獨立新聞』(1923년 2월 7일)

「三一節慶祝彙聞」, 『獨立新聞』(1923년 3월 1일)

「中韓互助社 主催 遊藝大會의 經過」, 『獨立新聞』(1923년 3월 7일)

「南京에 三一節」, 『獨立新聞』(1925년 3월 23일)

『朝鮮日報』

「가극 심청전 대공연」, 『朝鮮日報』(1936년 12월 12일)

「그 시대 사상과 심청전의 문학적 의의」, 『朝鮮日報』(1935년 1월 1일)

「레코드화한 심청전」, 『朝鮮日報』(1935년 1월 1일)

「심청전의 가치, 삼국사기에서 유형을 찾아」, 『朝鮮日報』(1935년 1월 1일)

「심청전 출판부수」, 『朝鮮日報』(1935년 1월 4일)

「심청전의 영화화와 출판부수」, 『朝鮮日報』(1935년 1월 4일)

「영화화된 심청전」, 『朝鮮日報』(1935년 1월 4일)

「심청전의 토키화」, 『朝鮮日報』(1935년 10월 30일)

「흥미 있는 만문화 심청전과 전대포」, 『朝鮮日報』(1936년 6월 1일)

「安夕影 감독으로 심청전을 영화화」, 『朝鮮日報』(1937년 7월 1일)

「금 28일 밤에는 심청전 전창 대회」, 『朝鮮日報』(1938년 4월 28일)

Abstract

A Study on the Korean's Play Activity in the Foreign Countries at
the Periods of Japanese colonial
- Laying stress on play performance that is reported -

Yeun, Keum-sun

This treatise observed about Korean's play activity who move to the United States America and Northeast Asia. This research was studied by three methods. First, play performance promoter and the activity aspect, second, play performance contents, third, it is social effect etc.

Digest and arrange substance that investigate in this research. That is, Korean people who move to the United States America and Northeast Asia played drama often in great and small event.

Generally, women's society and young men's association, student innng, religious group presented often by realistic necessity that unfolded play activity vigorously, and is contribution preparation. Also, inspire nationality and became means of friendship. By the way, it was lively that Soviet Union emigrants organize the play organization, and it is singular that played drama for enlightenment of the farmers mainly.

Next, observed performance substance. Korean's play performance in the United States America is same as following. First, play of manners improvement and mind inspiration, second, historical play and old book various play. Emigrant's play in Northeast Asia observed two as following. First, play of nationality inspiration and society enlightenment, second, socialism play criticism.

Finally, investigated about play as racial movement and social education. At that time,

was situated in particular actuality that motherland was Japan-made colony. Play performance took charge role that recognize nationality and society enlightenment to Korean resident abroads who could only just move abroad by these reason.

Key words : the periods of Japanese colonial, Korean's play activity, the United States America and Northeast Asia, emigrants, enlightenment play

접 수 일 : 2006년 8월 29일

심사기간 : 2006년 9월 1일~ 30일

게재결정 : 2006년 9월 28일

K C I